

개도국 지속가능발전 역량강화사업의 발전방향 -연수사업 중심으로-

조을생 외 |

연구진

연구책임자 조을생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참여연구원 심창섭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권소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원)
외부연구진 박태운 (연세대학교 교수)

자문위원

김형규 (KOICA 역량개발총괄팀 팀장)
김중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박사)
나태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조공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 2013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발행인 이병욱

발행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15 (우편번호) 122-706

전화 02)380-7777 팩스 02)380-7799

<http://www.kei.re.kr>

인쇄 2013년 10월 26일

발행 2013년 10월 31일

출판등록 제17-254호

ISBN 978-89-8464-785-5 93530

서 언

Rio+20 이후 지속가능발전과 빈곤퇴치의 관점에서의 녹색경제 이행 방안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경제성장, 사회발전, 환경보존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다각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역량강화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제사회는 개도국의 역량강화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선진국과 개도국 간 역량격차가 쉽사리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의 유기적 통합과 조화가 필요한 역량강화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분석과 이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외 역량강화 지원 연수사업의 현황 및 시스템 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수원국의 역량강화 지원 사업의 실효성 및 지속성 제고를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은 원조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의 역할을 모두 경험하였기 때문에 국가 간 역량차이를 줄일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가 향후 개도국 수요에 부응하는 역량강화 프로그램 기획, 시행 전후 평가 등을 하는 관련 실무자와 연구자들에게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 연구결과가 나오기까지 수행해 주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조을생 박사, 권소현 연구원과 외부연구원으로 참여해주신 연세대 박태운 교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관련된 풍부한 지식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자문의견을 주신 KOICA의 김형규 팀장,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김종환 박사, 연세대학교 나태준 교수, 본원의 조공장 박사

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3년 10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 이 병 욱

국문 요약

국제사회에서 지속가능발전과 이를 위한 개도국의 원조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개도국의 역량발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UN을 비롯한 여러 국제기관들이 수원국의 역량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수원국 중심 및 성과 중심의 효과적인 원조사업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역량강화 지원은 대상 수원국과의 지속적인 상호의견 교환 및 협력을 통해 증장기적인 전략으로 수원국이 주인의식을 갖고 스스로 자국의 특성에 맞는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지원 방식 및 협력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원국의 사회, 경제, 환경적 요소, 국가전략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개도국의 역량강화사업의 배경 및 기본구조를 살펴보고, 개도국의 역량강화를 위해 수행되었던 연수사업을 중심으로 국내외 사례를 비교하였다.

개도국들의 다양한 경제성장 수준 및 환경 수준차를 고려하여, 경제성장과 지속 가능한 환경존속을 동시에 제고하기 위해서는 수원국과의 신뢰형성을 기반으로 한 지속적인 참여와 협의, 사후 모니터링 및 환류를 통한 역량강화 사업의 선순환적인 프로세스 구축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초기단계의 수원국 역량수준 분석은 명확한 목표 설정을 반영한 역량발전 프로그램의 기획, 모니터링 및 성과 평가 시 기준이 되는 것으로 역량발전 프로그램을 효과적·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국내의 역량강화 지원 연수사업의 경우 수원국의 수요조사와 연수사업 자체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수요분야의 역량수준 평가나 연수사업 종료 후 수원국의 역량발전 과정의 모니터링 및 성과 평가 체계는 미흡하다. 따라서 국내의 역량강화 사업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 수원국의 역량 수준을 분석 및 기대 목표를 확인함에 따라 이를 토대로 격차를 줄이고 기대 역량 목표 달성이 가능한 분야의 우선순위 선정에 주력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역량 프로그램 이행

의 선진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향후 추진되어야 할 선행과제 및 관리방안 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가. 주제 분야별 개도국 역량측정 지표 및 성과 평가기법 개발

수원국의 지역적 상황과 특성을 고려한 사업의 우선순위 도출 및 역량발전 변화 과정을 정성·정량적으로 객관적 진단·평가할 수 있는 지표개발이 필요하다.

UN에서 제시한 기본원칙을 토대로 개인, 조직, 가능한 환경 수준별로 구분하여 I) 이해관계자 참여, ii) 지식/정보 활용 및 공유, iii) 법·제도 수립, iv) 관리 및 이행, v) 모니터링 및 평가 능력을 각 주제 분야별로 역량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 개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역량지표 구성은 사회·경제·환경적으로 지속가능발전 위해 개도국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글로벌한 공통지표와 각 주제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고유지표로 개발·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표준화된 역량지표는 각 사업에 실제 적용 시에는 대상 수원국의 특성을 반영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일부 평가항목의 추가·삭제 등의 변경이 필요할 수도 있다.

나. 개도국의 역량평가 및 성과관리 프로세스 강화

효과적인 사업계획은 현재의 수준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미래의 발전방향을 예측 하며 잠재역량 평가 등 정확한 분석을 기반으로 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개도국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시작단계부터 효율적이고 구체적인 역량강화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동일한 지역의 개도국일지라도 국가별 소득격차가 크고 발전 장애요소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수원국의 우선순위 이슈 및 역량 한계점의 정확한 진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역량평가 지표를 활용한 철저한 사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역량개발의 진입점이 개인인지, 조직인지, 가능한 환경인지를 규명하고 부문별 역량수준 및 미래 목표달성에 따라 단년/다년 연수사업으로 추진할지, 중장기 프로젝트 사업으

로 추진할지 분류하여 이에 따른 구체적인 기획 및 사업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더불어 체계적인 연수사업의 이행·성과 관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제별 역량평가 프로세스 추진에 많은 시간적, 재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역량평가는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DB로 구축하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역량발전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성과중심의 역량강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국내의 전형적인 연수사업 프로그램에 이 모든 과정을 포함하기에는 연수사업의 예산, 연수기간, 연수 위탁 수행기관의 전문성 등에 현실적 한계가 있을 수 있어 연수 프로그램 이행과는 별도의 프로젝트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 연수수행기관 역량강화

UN 등 국제사회 공동의 목표인 지속가능발전에 부합하면서 효과성 제고를 위한 개도국의 역량강화 사업의 내실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연수수행기관의 역량강화가 수행되어야 한다. 국내 KOICA 등에서도 연수기관 간의 모임을 주선하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기회를 마련하고는 있으나 다소 형식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연수기관의 역량지원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수기관도 국제 협력개발사업의 추세와 선진 연수기관의 모범적인 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연수기관 스스로의 역량강화 노력이 필요하다.

라.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그램 지원 강화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 및 이해를 강화하여 장기적 국가 발전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환경교육을 비롯한 지속가능발전교육 지원 사업이 필요할 것이다.

그동안 국제연수사업에서 공공행정 분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온 반면, 교육 및 환경 분야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환경관련 국제교

육은 환경 산업 수출을 위한 기술훈련 중심의 강의로 친환경적 사고로의 인식전환을 이끌어 내기에 다소 부족함이 있다.

따라서 각 기관에서 실시되고 있는 환경관련 국제 교육의 목적 및 내용을 점검하고 환경, 사회, 경제, 정치 등 다양하고 복잡한 원인들로 인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조화된 지속가능발전 교육개발 및 운영방안 도출이 필요하다. 지속가능발전은 각 국가의 현황이나 상황, 특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각 국가에 적합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프로그램과 교재 개발 연구 및 대상별 교육방안 개발은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 교육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2012년 10월에 송도에서 열린 이사회를 통해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유엔 산하의 국제기구인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을 송도에 유치한 바, 기후변화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를 개발하고 확산한다면 향후 GCF의 중요한 역량강화 지원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지속가능발전, 개도국의 역량강화, 역량평가, 역량측정 지표

| 차례 |

제1장 ·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내용 범위	4
제2장 · 개도국의 역량강화사업의 배경 및 기본구조	5
1. 역량강화 정의	5
2. 역량강화 사업의 형성배경	8
3. 역량강화 원칙 및 기본구조	9
4. 역량강화 패러다임 변화	13
제3장 · 국내 역량강화 사업현황	16
1. 국내 역량강화 사업의 개요	16
2. 역량강화 사업의 국내 주요 수행기관의 사업내용 및 추진절차	18
3. 국내 연수사업의 비교 및 시사점	30
제4장 · 주요 선진기관의 사례분석	32
1. GEF	32
2. JICA	36
3. SIDA	42
4. UN-HABITAT	47
5. UNITAR	50
6. 국외 연수기관 비교 및 시사점	58

제5장 · 결론 및 제언	61
참고문헌	69
부록	73
Abstract	81

| 표 차례 |

〈표 2-1〉 역량강화 패러다임 변화	15
〈표 3-1〉 연수형태별 개념정의	20
〈표 3-2〉 연수형태별 현황(2007~2011)	21
〈표 3-3〉 EHRD의 연수분야별 주요 연수과정	28
〈표 3-4〉 KOICA와 EHRD의 연수사업 비교	31
〈표 4-1〉 프로젝트 수준의 역량개발평가표	35
〈표 4-2〉 프로그램 수준의 역량개발평가표	36
〈표 4-3〉 JICA 훈련 및 대화 프로그램의 분야별 프로젝트 수	38
〈표 4-4〉 JICA 훈련 및 대화 프로그램의 유형	41
〈표 4-5〉 SIDA의 개발협력 5개 중점 분야	43
〈표 4-6〉 2013 ITP 프로그램	46
〈표 4-7〉 UNITAR 프로그램 분야	51
〈표 4-8〉 CIFAL Jeju 추진 프로그램	55
〈표 4-9〉 국외 연수기관의 연수 비교	60

| 그림차례 |

〈그림 2-1〉 UNDP의 역량강화 정의	6
〈그림 2-2〉 역량구축과 역량개발	7
〈그림 2-3〉 역량강화 개발 과정	10
〈그림 2-4〉 UNDP 역량 평가 프레임워크	12
〈그림 2-5〉 역량개발 측정 프레임워크	13
〈그림 3-1〉 한국 ODA 지원실적	17
〈그림 3-2〉 수원규모 상위 20개국	19
〈그림 3-3〉 사업유형별 지원 비율	19
〈그림 3-4〉 분야별 연수생 초청 사업(2011)	22
〈그림 3-5〉 다국가 단기 국내초청연수사업 추진절차 및 방법	24
〈그림 3-6〉 다년간 국별 국내초청연수사업 추진절차 및 방법	26
〈그림 3-7〉 EHRD 국제연수프로그램 과정 수, 참가국 수, 참가인원 ·	27
〈그림 3-8〉 국제연수 프로그램 모듈	29
〈그림 4-1〉 측정가능한 역량 분류	34
〈그림 4-2〉 JICA 훈련 및 대화 프로그램의 과정 수와 참석자 수	37
〈그림 4-3〉 JICA 훈련 및 대화 프로그램의 추진절차	39
〈그림 4-4〉 SIDA ITP의 추진절차	45
〈그림 4-6〉 UN-HABITAT의 훈련 추진절차	48
〈그림 4-7〉 UN-HABITAT의 훈련수요분석 절차	49
〈그림 4-8〉 UN-HABITAT의 훈련결과평가 절차	50
〈그림 4-9〉 2012 UNITAR 지역별 수혜자 비중	52
〈그림 4-10〉 제주국제연수센터의 연수 추진절차	57

| 제1장 ·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UNCED) 이후부터 지속가능발전이 국제개발협력에서 궁극적인 목표로 계속 제시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개념은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WCED) 브룬트란트 보고서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에 처음 제시되었다. 이에 따르면,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을 일컫는 말로, 경제의 지속 가능성뿐만 아니라 자연자원을 포함한 생태계 전체가 지속 가능할 것을 요구하였다. 지속가능발전은 3개의 축(pillars) — 사회발전, 경제성장, 환경보존 —이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환경, 경제, 사회의 상호의존적이고, 상호보완적인 통합적 발전을 강조한다.

이후 1992년 UNCED Rio 정상회의에서 지구환경보호의 기본원칙인 ‘Rio 선언’과 21세기를 향한 환경보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부실천계획인 ‘Agenda 21’을 확정·채택함으로써 새로운 지구환경 질서의 실천토대를 마련하였다. 그 중에서 ‘Agenda 21’은 사회, 경제, 환경 이슈에 대한 의사결정 및 이행에 있어 정부와 국제기관 간의 협력 통합을 위한 국가 역량 구축을 강조하였다. ‘Agenda 21’의 제37장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의 이행경로를 따르는 국가의 역량은 생태학적, 지리학적 조건뿐만 아니라 국민 및 제도의 역량¹⁾에 따라 결정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2000년 UN정상회의에서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를 채택하여 지속가능발전 및 ‘Agenda 21’의 기본원칙에 대해 재확인하였으

1) UNEP(2002), Capacity building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 Overview of UNEP Environmental Capacity Development Activities, p.11

며, MDG 8대 목표 중에서 MDG 7은 지속가능발전 원칙을 국가 정책 및 프로그램에 통합시킴으로써 환경지속성을 확보할 것을 국가들에 중용하였다.

이후 국제사회는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는 통합 정책의 개발 및 이행의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인식하였다.

2002년 남아공의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WSSD)에서 ‘Agenda 21’의 구체적 실천계획인 ‘이행계획’(Plan of Implementation) 또는 ‘요하네스버그 이행계획’을 채택하였고, 지역, 국가, 지방, 글로벌 측면에서 지속가능발전 촉진 경제성장, 사회평등, 환경보존을 강화하고, 특히 정책입안자 및 전문가에게 환경과 지속가능발전 간의 복잡한 관계에 대해 이해시키고, 통합 정책·계획·프로그램의 디자인 및 이행을 장려하기 위해 역량강화의 중요성을 강조²⁾하였다.

201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UNCSD Rio+20)의 결과문서 ‘우리가 원하는 미래(The Future We Want)’ 문단(paragraph) 277-280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이행을 위한 핵심 활동 중 하나로 역량강화(Capacity building)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역량강화에 포함되는 활동으로는 훈련, 경험 및 전문지식의 교환, 지식이전 및 기술원조, 인적자원의 개발 등이 있으며, 역량 기획, 역량 관리, 역량 모니터링 등의 제도적 역량, 남-북(North-South) 협력,³⁾ 남-남(South-South) 협력,⁴⁾ 삼각(triangular) 협력,⁵⁾ 과학기술 협력을 강화시킬

2) UNEP(2005), Enhancing Capacity Building for Integrated Policy Design and Implement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p.3

3) 일반적으로 ‘남(South)’은 개발도상국을 의미하며, ‘북(North)’은 선진공여국을 뜻한다. 북남협력은 선진공여국-개발도상국 사이의 원조-수혜 협력을 말한다.

4) 남남협력은 개발도상국(남)에서 개발도상국(남)의 지원을 말한다. 국제개발협력의 새로운 파트너십을 제안하고 있는 남남협력은 개발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다양한 시도와 논의 중 하나이다. 지난 2008년 9월 가나 아크라에서 개최된 ‘제3회 원조효과성에 관한 고위급회의(the 3rd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에서 선진공여국의 원조사회 편입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에서 시작되어 구체화되었다. 현재 남남협력은 기존의 북남협력을 보완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협력 구도로 주목받고 있다. <http://www.worldfriends.kr/127>, 검색일자: 2013.8.20

5) 삼각협력은 남남협력에 대한 북측 공여국의 지원을 뜻한다. 개발도상국과 개발도상국, 선진공여국이 삼각을 이뤄 협력을 논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필요가 있음을 언급⁶⁾하였으며, 기술지원과 역량강화를 위한 발리전략계획(Bali Strategic Plan)의 지속적인 시행을 강조⁷⁾한다. 그리고 글로벌 환경 개발 및 지속가능개발 평가 및 모니터링 과정과 관련하여 국가역량을 강화하고, 정책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필요한 연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도국과 선진국의 남녀 과학자 및 연구원들의 참여를 독려해야 함을 강조⁸⁾한다. 역량강화를 위해 UN 관련 기관들과 개도국을 지원하는 여타 국제기관들은 경제적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실행(practices) 공유, 재해 리스크 경감을 개발계획에 통합시키기 위한 지식 및 역량 강화, 자원효율적인 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북-남, 남-남, 삼각 협력 지원, 민관협력사업(public-private partnerships) 증진을 통해 특히 최빈개도국의 역량강화를 추진해야함을 강조⁹⁾한다.

이와 같이 역량강화는 지속가능발전 및 MDG 빈곤퇴치라는 범세계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좀 더 통합적인 정책을 디자인하고 이행하기 위한 핵심적인 수단으로써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단기간의 급속한 발전경험은 대외원조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개도국들의 관심사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여러 국내기관들은 개도국을 대상으로 다양한 분야의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의 기 수행된 역량강화 사업들의 현황 및 시스템을 선진국과 비교·분석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개도국의 역량격차를 줄일 수 있는 역량강화사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6) Future we want-Outcome document Paragraph 277(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on 27 July 2012), <http://www.uncsd2012.org/>, 검색일자: 2013.8.20

7) Future we want-Outcome document Paragraph 278(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on 27 July 2012), <http://www.uncsd2012.org/>, 검색일자: 2013.8.20

8) Future we want-Outcome document Paragraph 279(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on 27 July 2012), <http://www.uncsd2012.org/>, 검색일자: 2013.8.20

9) Future we want-Outcome document Paragraph 280(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on 27 July 2012), <http://www.uncsd2012.org/>, 검색일자: 2013.8.20

2. 연구내용 범위

역량강화는 프로젝트 사업을 비롯하여 다양한 형태의 원조사업에 포함되어 있지만 연구기간 및 자료수집 등의 한계로 인해 모두 살펴본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연수사업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본 보고서 구성은 총 5장으로 이루어졌으며 주요 연구내용은 제2장에서 개도국의 역량강화사업의 배경 및 구조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부분은 역량강화의 정의, 역량강화 사업의 형성배경, 역량강화 원칙 및 기본구조, 역량강화 패러다임 변화로 구성되어 있다. 제3장은 국내 역량강화 사업 현황에 대해 조사 분석한 것으로, 국내 역량강화 사업의 개요, 역량강화 사업의 국내 주요 수행기관의 사업내용 및 추진절차를 살펴보았다. 제4장은 GEF, JICA, SIDA, UNITAR 등 주요 선진기관들의 역량강화 사례를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2~4장에서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역량강화사업의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성과물은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및 녹색경제 관련 지속가능발전 역량강화 방향제시를 통한 사업 발굴 및 활성화를 위한 기초 자료로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개도국 지속가능발전 역량강화 사업의 효과성 제고에 기여하며,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ODA 지속 확대 및 모범적통합적 개발협력 추진, ODA 규모 2015년까지 국민총소득 대비 0.25% 확대 목표 달성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제2장 · 개도국의 역량강화사업의 배경 및 기본구조 |

1. 역량강화 정의

역량강화(Capacity Building)라는 용어는 1991년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에서 처음 사용하였다. UNDP는 역량강화를 정의함에 있어, 지식 및 정보 공유, 훈련 등을 통한 인적자원 개발, 커뮤니티 참여를 포함한 조직 개발 및 관리시스템의 강화, 적절한 정책과 법적체계 구축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정부관료, 지방당국자, NGO, 전문가 집단, 학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장기적인 프로세스¹⁰⁾라고 한다.

1970년대 초 UNDP는 Capacity Building라는 용어 대신 Institution Building이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Institution Building은 민간항공, 기상학, 농업, 보건, 영양학 등의 분야에서 기본적인 국가 조직 능력을 향상시키고, 관련 UN 기관들이 역량구축을 지원하는 것을 지칭¹¹⁾하였다.

이후 Institutions Building이라는 용어는 1991년 즈음 역량강화(Capacity Building)라는 용어로 전환되었고, 1992년 역량강화는 유엔환경개발회의 Agenda 21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를 잡았다. Agenda 21의 제37장에서는 역량강화를 해당국가의 인적자원, 과학기술적 자원, 조직 및 제도적 자원 역량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관련 국가의 수요 및 환경 제약성 및 잠재성을 고려하여 개발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정책 선택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를 다루거나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강화시키는 것을 역량강화의 기본목표라고 밝히고 있다.

10) Coastal Wiki 홈페이지(http://www.coastalwiki.org/wiki/Capacity_Building), 검색일자: 2013.6.27

11) Coastal Wiki 홈페이지(http://www.coastalwiki.org/wiki/Capacity_Building), 검색일자: 2013.6.27



자료: UNDP(2009), Capacity Development: A UNDP PRIMER, p.11.

〈그림 2-1〉 UNDP의 역량강화 정의

UNDP는 역량강화 범주를 개인(individual), 조직(organizations), 가능한 환경(enabling environment)의 세 가지 수준으로 분류하고 있다.

개인적인 수준¹²⁾은 개인의 기술, 경험, 지식을 가리키며, 개인 역량 개발은 조직적인 요소와 환경적 요소에 의해 형성된다.

조직적인 수준¹³⁾은 조직의 효과성을 결정하는 내적 구조, 정책 및 절차를 가리킨다. 이는 개인을 통합시키고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이점을 가져온다.

가능한 환경¹⁴⁾은 넓은 개념의 사회적 시스템을 말하며, 이 사회적 시스템 내에서 인적자원 및 조직들이 기능한다. 가능한 환경은 역량 개발에 유효한 역할을 하는 요소 또는 규제 요소로 구성되는데, 모든 규칙, 법, 정책, 권력관계, 사회규범 등이 이에 포함되며 이러한 요소들은 역량 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범위를 설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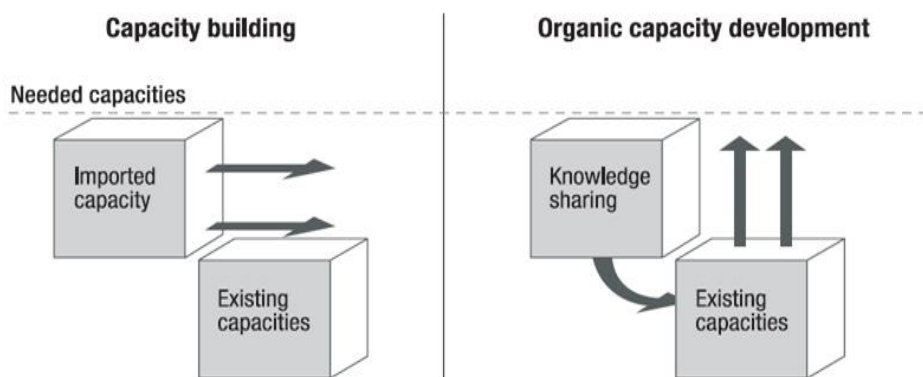
12) UNDP(2008), Capacity Development PRACTICE NOTE, p.6.

13) UNDP(2008), Capacity Development PRACTICE NOTE, p.6.

14) UNDP(2008), Capacity Development PRACTICE NOTE, pp.5~6.

최근 UNDP는 역량강화(Capacity Building)이라는 용어보다는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달성을 위해 기존의 개인, 조직, 사회의 역량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전하는 과정을 뜻하는 역량개발(Capacity Development)¹⁵⁾이라는 용어 사용을 선호한다.

역량개발은 출발단계에서부터 기존 국가 역량을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장기적 관점에서 수원국이 주인의식을 갖고 주도하도록 외부 행위자들이 이를 지원¹⁶⁾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역량강화는 수원국의 기존의 역량을 고려하지 않고 외부의 공여자가 현지에 들어와 역량을 구축해주는 개입행위를 지칭한다.



자료: Carlos Lopes and Thomas Theisohn(2003), Ownership, Leadership and Transformation, p.10

〈그림 2-2〉 역량구축과 역량개발

이처럼 역량강화는 개인, 조직, 사회가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각자의 역할 수행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키는 프로세스¹⁷⁾이며, 이 프로세스는 시간에 따라 지속가능한 전환(transformation)으로서의 개발(development)로 그 의미가 진화¹⁸⁾하고 있다.

15) UNDP(2009), Bureau for Development Policy, Capacity Development: A UNDP PRIMER, pp.5~6.

16) UNDP(2008), Capacity Development PRACTICE NOTE, p.5.

17) UNDP(2006a), Enhancing the UN's Contribution to National Capacity Development, A UNDG Position Statement.

2. 역량강화 사업의 형성배경

개도국의 역량강화 중요성이 증대한 배경은 국제원조 효과성에 대한 논쟁이 대두되면서부터이다. 1989년 탈냉전시대에 강대국은 원조를 수원국 정부와의 정치군사적 동맹관계를 유지 강화하는 수단으로 인식하였다. 이후 선진국의 원조 규모가 급격히 감소되었다. 1990년대 후반 원조효과성에 대한 논쟁 및 2000년 UN새천년선언에 개발재원을 위한 고위급 회의가 개최되면서 원조 규모 증대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그 결과 2002년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개최된 UN개발재원국제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에서 원조 공여국들은 2015년까지 ODA 규모를 GNP 대비 0.7%로 증대하고 GNP의 0.15~0.2%는 최빈개도국에 지원하기로 합의¹⁹⁾하였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의 원조 규모는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유상원조 중심의 원조가 개도국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고, 원조 공여국의 물자나 용역을 구매 조건으로 하는 구속성 원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유상원조에서 무상원조로의 전환 및 비구속성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었다.²⁰⁾ 이러한 주장을 지지하고 있는 제프리 삭스(Jeffrey D. Sachs)는 빈곤국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고강도 부채 탕감, 개발지원 확대, 부국들과의 교역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²¹⁾

다른 한편의 논쟁에서는 원조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원인을 수원국의 부패한 통치구조 및 미흡한 거버넌스에서 찾고 있다. 1998년 세계은행이 발간한 ‘원조 평가: 작동 여부와 그 원인(Assessing Aid: What works, What doesn't, and Why)’은 원조의 효과가 수원국의 정책과 제도의 질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지적하였다.²²⁾ 따라서 외국의 재정원조보다도 수원국이 경제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가

18) UNDP(2009), Bureau for Development Policy, Capacity Development: A UNDP PRIMER, p.6.

19) United Nations(2002), Report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New York: United Nations.

20) 이종무, 김태균, 송정호(2011), 수원국의 역량발전을 위한 개발협력전략과 사례연구, 통일연구원, p.4.

21) 제프리 D. 삭스, 김현구 옮김(2006), 빈곤의 종말, 파주: 21세기북스, pp. 123~126/ 이종무, 김태균, 송정호(2011), 수원국의 역량발전을 위한 개발협력전략과 사례연구, 통일연구원, p.5.

22) 이종무, 김태균, 송정호(2011), 수원국의 역량발전을 위한 개발협력전략과 사례연구, 통일연구원, p.5.

더욱 중요한 문제이며, 수원국의 경제발전이 뒤처지는 것은 자본의 격차가 아니라 정책 및 제도의 격차에 있다는 것이다.²³⁾ 이러한 주장을 지지하는 연구자로는 번사이드(Craig Burnside)와 달러(David Dollar)가 있는데, 이들은 사례연구를 통해 수원국의 좋은 정책이 원조와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논증하였다.²⁴⁾

결국 이러한 논의들은 원조의 효과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특히 2002년 UN개발재원국제회의에서 수원국의 정책 및 거버넌스, 수원국의 주인의식(ownership), 원조 조화(harmonization)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강조되었고, 이러한 배경 속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의 주도로 2003년 로마에서 ‘원조 조화를 위한 고위급 포럼(High-Level Forum on Harmonization, HLF-1)’이 개최되어 로마선언을 채택하였다. 이후 2005년 ‘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한 파리선언(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에서 수원국의 개발전략 수립 및 집행 역량과 공공 재정관리 역량을 강화할 것을 강조하였다.²⁵⁾ 특히 파리 선언에서는 정부, 공여기관, 수원국, 시민사회, 민간기관 간 국가 역량 강화를 위한 파트너십을 강조하였다. 2008년 아크라 회의에서 아크라행동계획이 채택²⁶⁾되면서 역량강화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이처럼 21세기 개발협력에서 개도국(수원국)의 역량강화는 중요 의제이다.

3. 역량강화 원칙 및 기본구조

역량은 국가개발전략, 사회경제개발 계획 등에 뿌리를 두고 개발시켜야 하는 것이다.²⁷⁾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UNDP의 접근법의 기본원칙²⁸⁾은 개인, 조직, 가능한

23) World Bank(1998), *Assessing Aid: What Works, What Doesn't, and Wh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103.

24) 이종무, 김태균, 송정호(2011), *수원국의 역량발전을 위한 개발협력전략과 사례연구*, 통일연구원, p.6.

25) GEF, UNDP, UNEP, *Monitoring Guidelines of Capacity Development in GEF Operations*, p.4.

26) 이종무, 김태균, 송정호(2011), *수원국의 역량발전을 위한 개발협력전략과 사례연구*, 통일연구원, pp.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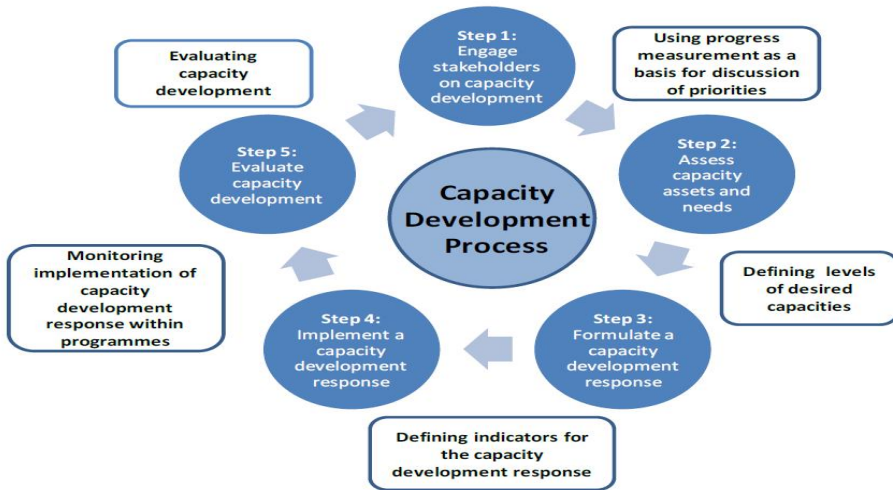
27) UNDP(2009), *Bureau for Development Policy, Capacity Development: A UNDP PRIMER*, p.19.

28) UNDP(2008), *Capacity Development PRACTICE NOTE*, p.7.

환경을 연계시키고, 개인의 기술뿐만 아니라 제도의 변화, 대중의 참여에 응하는 훈련에 중점을 맞추며, 국가계획 및 국가시스템의 활용을 강조하는 장기 프로세스로 접근해야 한다.

UNDP가 정의하고 있는 역량강화에서 개인, 조직, 사회의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4가지 핵심이슈²⁹⁾를 조직 제도, 리더십, 지식, 책임으로 분류하였으며, 각각의 핵심 이슈는 수원국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역량강화 평가 범위를 설정하는 토대를 제공한다.

또한 UNDP는 역량 개발 과정은 디자인-적용-학습-조정의 반복적인 과정으로 5단계³⁰⁾로 — 1) 이해관계자 참여, 2) 역량평가, 3) 역량강화대응책 구축, 4) 역량강화대응책 이행, 5) 역량개발 평가 — 나누고 있다.



자료: UNDP(2008), Capacity Development PRACTICE NOTE, p.8.

〈그림 2-3〉 역량강화 개발 과정

29) UNDP(2009), Bureau for Development Policy, Capacity Development: A UNDP PRIMER, pp.13~15, 43~45.

30) UNDP(2009), Bureau for Development Policy, Capacity Development: A UNDP PRIMER, pp.22~32.

역량 개발 과정 1단계인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수원국은 국가의 주도권과 책임 의식을 구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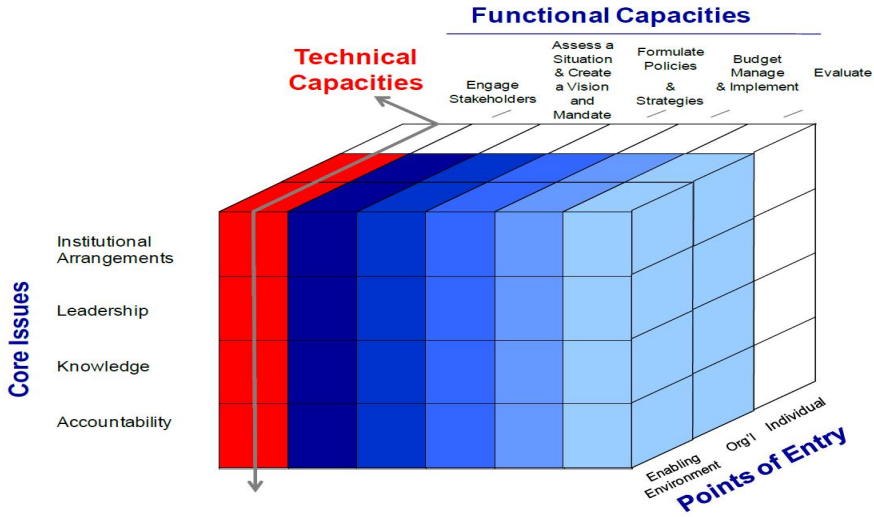
역량 개발 과정 2단계인 ‘역량 평가’는 역량개발의 가장 중요한 출발 단계로 수원국의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존 역량의 확인과 기대 역량의 예측을 통해 현재의 역량격차가 측정된다. 역량수준 평가는 역량강화개발대응을 위한 출발점을 제공하며, 액션에 우선순위 선정 및 실행을 위한 촉매로써의 역할을 하고, 이해관계자 간 대화 플랫폼,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의 효과적인 수행을 하기 위한 기초작업이다. UNDP 역량 평가 방법론³¹⁾에서 제시된 역량 평가 프레임워크는 진입점(Points of entry),³²⁾ 핵심 이슈(core issues),³³⁾ 기술적/기능적 역량(Functional and technical capacities)³⁴⁾으로 구성된다.

31) UNDP(2008), Capacity Development PRACTICE NOTE, p.11.

32) 역량 평가(Capacity Assessment)를 왜 하는지에 대한 목적을 분명히 밝히는 것은 진입점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역량 평가는 가능한 환경(Enabling environment), 조직적인 수준, 개인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며 이 3가지 수준이 진입점을 제공한다.

33) 역량 변화의 동인은 1) institutional arrangements, 2) leadership, 3) knowledge, 4) accountability이다.

34) 기능적인 역량은 1)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역량(Capacity to engage stakeholders), 2) 상황을 평가하고, 비전 및 권한을 정의할 수 있는 역량(Capacity to assess a situation and define a vision and mandate), 3) 정책 및 전략을 구축할 수 있는 역량(Capacity to formulate policies and strategies), 4) 예산, 관리, 이행 역량(Capacity to budget, manage and implement), 5) 평가할 수 있는 역량(Capacity to evaluate)을 강조한다. 기술적인 역량은 기후변화, HIV/AIDS, 법적 권한(legal empowerment), 선거(elections)와 같은 전문 분야의 기술과 연관된다.



자료: UNDP(2008), Capacity Development PRACTICE NOTE, p.8

〈그림 2-4〉 UNDP 역량 평가 프레임워크

역량 개발 과정의 마지막 5단계는 ‘역량개발 평가’로 이를 위한 지표는 조직적 역량 지표, 가능한 환경 역량 지표, 주제별 역량 지표로 분류³⁵⁾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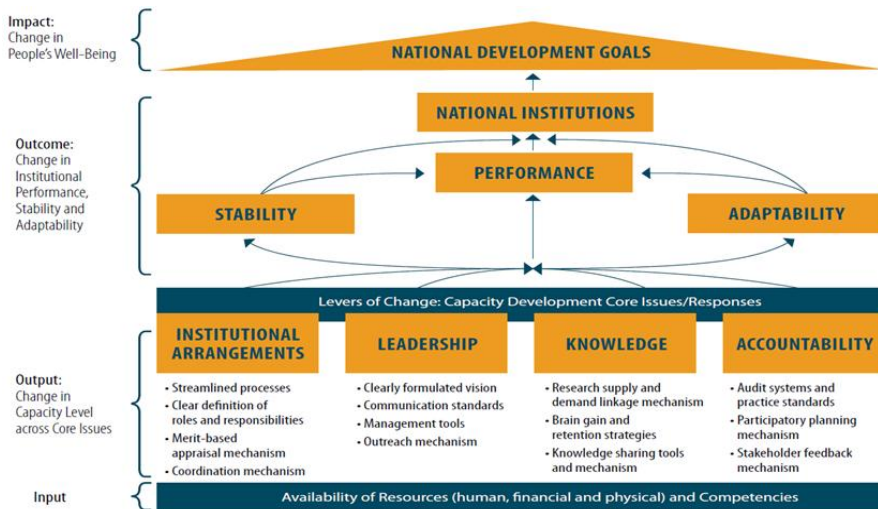
조직적 역량 지표는 법적, 인적, 재정 구조 지표가 잘 형성되어 있는지, 조직의 성격, 조직의 리더십 지표를 통해 조직 환경이 잘 갖추어졌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국가/지방의 전략적, 운영적, 재정적 기획을 위한 역량평가를 개발할 때 사용된다.

가능한 환경 역량 지표는 시스템적, 사회적, 국가적 또는 전략적 수준에서 역량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의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역량 지표로, 사법적 효과성을 평가할 때,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평가할 때, 지방정부, 미디어, 시민사회, 민간부분, 국제기관의 효율성과 투명함을 평가할 때 사용된다.

주제별 역량 지표는 지속가능발전전략의 이행전략, 바젤협약, 기후변화 협약, 사

35) UNDP(2005), Measuring Capacities: An Illustrative Catalogue to Benchmarks and Indicators, pp.6~27.

막화 방지를 위한 UN협약,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를 통해 조직 프레임 워크를 평가할 때, 정보접근, 통신 인프라, 과학기술, 재해 방지 및 대응을 통해 조직 역량을 평가할 때, 인구, 인간개발지수, 토지구모, 산림면적, 보존지역, 에너지소비, CO₂ 배출량, 오존층 파괴물질인 프레온 가스 소비, 안전한 음용수 접근 인구, 임업, 도시인구비율 지표를 통해 환경지속성과 국가역량 건전성을 파악할 때 사용된다.



자료: UNDP(2009), Capacity Development: A UNDP PRIMER, p.48.

〈그림 2-5〉 역량개발 측정 프레임워크

4. 역량강화 패러다임 변화

역량강화의 진화 초기단계는 선진국이 개도국에 자금을 빌려주는 형식의 개발원조³⁶⁾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자금공급 및 투자형식의 원조는 개도국의 대외원조에

36) UNDP(2009), Bureau for Development Policy, Capacity Development: A UNDP PRIMER, p.8.

대한 의존도 및 채무 증가뿐만 아니라 단발적인 원조효과만 가져왔다.

이후 자금만 빌려주는 개발원조 방식에서 한 단계 진화하여 기술 원조³⁷⁾를 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 역시 개도국의 대외원조 의존도를 증가시켰고, 전문가들 대부분이 외국인으로 대외적으로 수원국의 특성이 크게 고려되지 않은 채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불평등한 관계만 강조되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자 국가정책을 토대로 기술이전 및 교육훈련을 강조하는 기술 협력³⁸⁾의 단계로 진화되면서, 초기에는 시장에서 상용 가능한 최신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훈련을 통해 역량을 개발시키는 것에서 출발하였다.

이후 역량개발은 인간개발과 연계하여 발전되었다. 기존에 공여국의 전문가들이 수원기관에 파견되어 필요한 업무를 수행했던 방식에서 수원기관의 정부부처 직원들에게 지식 및 전문기술 이전을 통해 수원국의 역량개발에 주력하는 방식으로 발전하였다. 또한 내적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고 국가시스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명확한 전략을 가지고, 부처 시스템 통합을 지향함으로써 국가/지방시스템 역량을 강화³⁹⁾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역량강화는 인간개발과 연계하여 개인, 조직, 정책 등의 역량을 개발시키는 것으로 국내자원(국민, 기술, 조직)을 활용하며, 정책 및 제도 개혁을 통해 지속적인 전환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진화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개인의 역량 구축에서 조직 및 사회의 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개념으로 바뀌고 있다.⁴⁰⁾ 또한 이러한 추세 속에서 국제사회는 역량강화를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에 통합시키는 것을 지원하고 있으며, 역량강화지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기 위한 모니터링 및 평가 접근법을 제안하고 있는 추세이다.

37) UNDP(2009), Bureau for Development Policy, Capacity Development: A UNDP PRIMER, p.8.

38) UNDP(2009), Bureau for Development Policy, Capacity Development: A UNDP PRIMER, p.8.

39) UNDP(2009), Bureau for Development Policy, Capacity Development: A UNDP PRIMER, p.6.

40) GEF, UNDP, UNEP, Monitoring Guidelines of Capacity Development in GEF Operations, p.3.

〈표 2-1〉 역량강화 패러다임 변화

구분	기존 패러다임	새로운 패러다임
개발(Development) 성격	경제적·사회적 조건의 향상	역량구축을 통한 사회적 전환
효과적인 개발협력의 조건	공여국(선진국)의 정책	현지 상황을 반영하여 수립
공여국-수여국의 불균형 관계	일반적으로 파트너십과 상호 존중을 통해 해결	상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적용을 통한 해결
역량개발(Capacity Development)	조직과 연계한 인적자원의 개발	개인, 조직, 사회적 차원에서 상호 연관된 3개 층위의 역량
지식의 습득	지식은 이전될 수 있는 것	지식은 획득되어야만 하는 것
가장 중요한 지식의 유형	개도국에 이전하기 위해 선진공여국에서 만들어진 지식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로부터 획득된 지식과 현지의 지식 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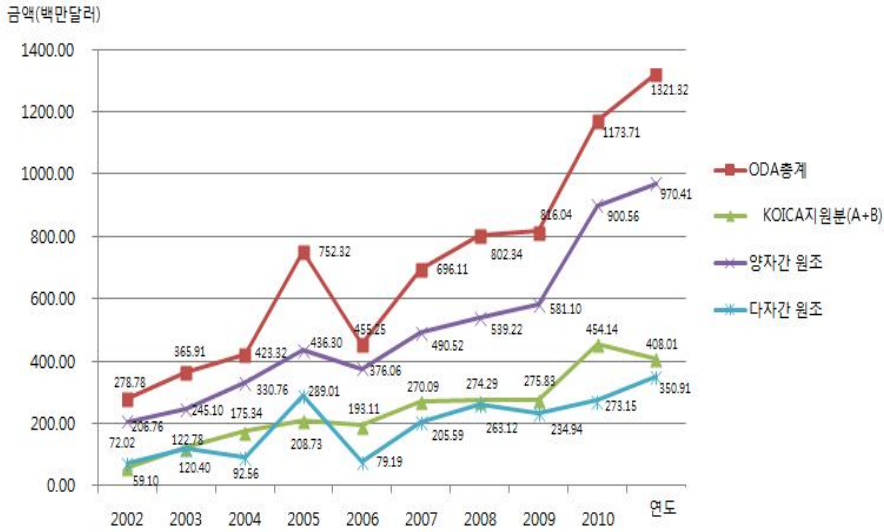
자료: Sakiko Fukuda-Parr, Carlos Lopes, and Khnlid Malik(2002), Capacity for Development: New Solutions to Old Problems, EARTHSCAN, UNDP.

| 제3장 · 국내 역량강화 사업현황 |

1. 국내 역량강화 사업의 개요

한국은 1945년 독립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여러 선진국과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유무상 원조를 경제사회개발에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빠른 시간 내에 최빈국에서 탈피하고 강력한 산업국가로 변화하였다.

빠른 경제성장으로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개도국에 대한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1991년 한국국제협력단(KOICA) 설립 등으로 본격화되었다. 한국은 2000년 OECD 수원국 리스트에서 제외되었고, 2009년에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에 가입하여 선진 공여국 대열에 합류함으로써 원조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첫 번째 국가로 개도국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한국은 2011년에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를 개최함으로써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OECD에서 지정한 수원국의 경제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해 개도국 및 국제기구 등에 ODA의 규모 확대 및 개발효과성 의제 등 개발협력 국제논의를 주도하였다. ODA 규모 측면에서도 1995년도에 1.1억 달러에 불과했던 원조규모가 2011년도에는 약 13억 달러를 기록하여 큰 증가세를 보였다(그림 3-1 참조).



주: ODA=양자간 무상원조(KOICA) 및 유상원조(EDCF)+다자간원조(국제금융기구를 통한 지원, KOICA)
 자료: 2011 KOICA 대외무상원조실적 통계 참조.

〈그림 3-1〉 한국 ODA 지원실적

또한 ODA 추진의 법적 기반 마련 및 정책 일관성 확보를 위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2010) 제정을 계기로 ODA 통합 추진체제를 구축하고, 동시에 ‘ODA 선진화 전략(2010)’, ‘분야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1-2015)’을 비롯하여 ‘국가협력전략(County Partnership Strategy, CPS)⁴¹⁾’을 수립⁴²⁾하였다. 이처럼 한국은 국제사회 차원에서 ODA 규모 확대와 원조효과성 제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원조 성과 창출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원조 규모의 확대와 효과적인 개발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41) 개별 수원국에 대한 한국 정부의 중장기 지원 방향, 예산, 지원 분야를 포함하는 전략으로서 국가별 지원의 기본적인 지침을 제공함. 협력국에서 작성한 국가협력전략 혹은 빈곤감소전략을 바탕으로 타 공여국의 지원현황과 우리의 비교우위를 반영하여 작성됨. ODA Korea 홈페이지(<http://odakorea.go.kr/index.jsp>) - 한국 ODA의 이모저모, 검색일자: 2013.7.18.

42) KOICA 홈페이지(<http://www.koica.go.kr/>) - ODA 알기(한국의 개발원조) 참조, 검색일자: 2013.7.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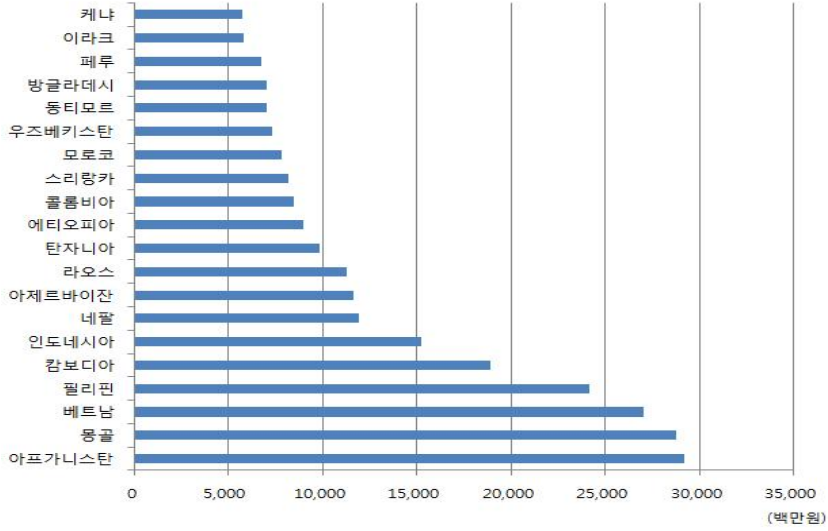
수원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원조 효과성 제고에 있어 핵심 활동으로 강조되고 있는 역량개발 지원도 프로젝트 사업, 연수사업, 해외봉사단 파견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이 중 연수사업은 개도국의 인적자원개발, 조직역량 강화 및 제도구축 지원에 중점을 두고 수행하는 대표적인 역량배양 지원 사업이다. 1963년 미국국제개발청(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에 의한 수탁훈련의 형태로 시작된 연수사업은 1965년부터는 우리 정부의 자체예산으로 독자적으로 실시하였다. 이후 1991년 설립된 KOICA를 비롯해 한국환경공단, 환경산업기술원, 환경보전협회 등 해당 분야별 전문성을 가진 다양한 연수수행기관이 국내초청연수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으로 KOICA와 환경분야의 연수사업을 중심으로 기획/수행하고 있는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역량강화 사업의 국내 주요 수행기관의 사업내용 및 추진절차

가. 한국국제협력단(KOIC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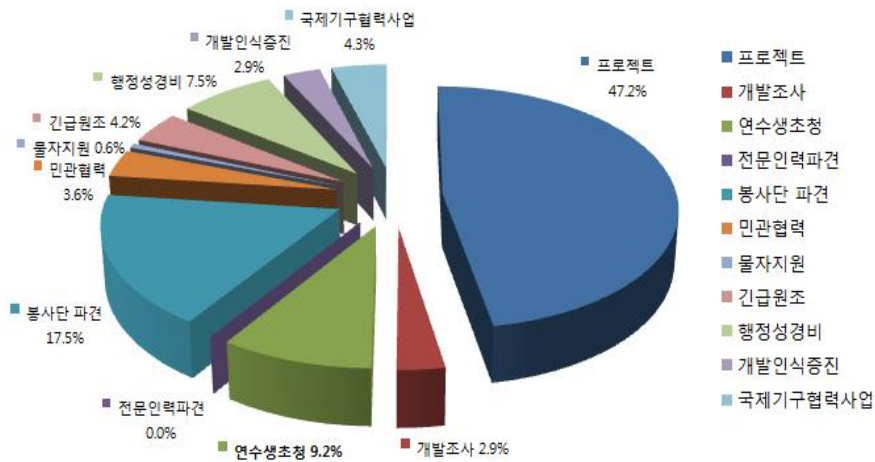
KOICA는 정부차원의 대외무상협력사업을 전담 실시하는 기관으로, 개발도상국가와의 우호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하고 새천년개발 목표 달성과 수원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 원조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11년 기준 KOICA의 수원규모 상위 20개국을 살펴보면, 주로 아프리카 및 동남아 지역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그림 3-2 참조).

사업유형별로는 프로젝트, 봉사단 파견 다음으로 연수생초청 사업의 지원규모가 크다(그림 3-3 참조). KOICA는 1999년 국제협력연수센터(International Cooperation Center, ICC)를 개원하였으며, 2011년 조직이 개편되면서 지역부에서 국가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을 바탕으로 한 국별 연수를 추진하고 역량개발부에서는 글로벌연수를 전담하고 있다. 2012년 개도국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사업 브랜드인 씨앗(Capacity Improvement & Advancement for Tomorrow, CIAT)을 출범, 다년간 연수 확대 등을 통하여 연수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자료: 2011 KOICA 대외무상원조실적 통계 참조.

〈그림 3-2〉 수원규모 상위 20개국



자료: 2011 KOICA 대외무상원조실적 통계 참조.

〈그림 3-3〉 사업유형별 지원 비율

KOICA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형별 연수사업은 국별 정책 우선순위 및 CPS(부록1 참조) 등을 고려하여 국가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국별연수, 우리나라 개발경험과 비교우위를 고려해 여러 국가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본연수와 특별연수, 특정국가와 양자 간 공동으로 실시하는 공동연수, 개도국의 핵심 인재양성과 정책개발능력 배양을 목표로 국내 대학과 공동으로 실시하는 학위과정(Scholarship Program)으로 나뉜다. 사업형태별 규모는 아래 <표 3-1>과 같다.

<표 3-1> 연수형태별 개념정의

분류	개념정의	운영방향
국별연수	개도국 요청, 국가별 수요 및 실정 반영하여 인적자원개발 및 조직, 제도운영상의 문제해결 등을 다룸	- 개도국의 경제개발 및 빈곤퇴치에 부응 - 다년간 운영
기본연수	한국이 비교우위를 가진 분야에 다국적 개도국 인력 초청	- 정책 및 제도 수립, 기능/기술 향상 관련 발전 경험 전수 - 개발경험 전수 관련 연수내용 표준화
특별연수	개도국 정부나 지역협력기구의 특별요청에 의해 한시적으로 개설	- 특수 수요에 부합 - 한시적 실시
공동연수	국제협력기구, 타 선진원조기관, 수요국과의 기술적 재정적 협력을 통해 공동 운영	- 연수의 현지 접근성 강화, 다자기구와의 협력
학위과정 (Scholarship Program)	개도국의 핵심인재 육성을 위해 1년 이상의 학위과정에 초청	- 공공정책, 국제통상 및 협력 등 개도국 경제사회개발에 필요한 우수인적 자원 발굴 및 1년 이상의 석사 학위과정 운용

자료: 연수사업 형태별 구분개념(2008.1.3)/연수형태별 구분 및 용어 재정립/ KOICA 연수생 초청사업 효과성 평가 보고서(2010.7).

2007년부터 2011년 연수형태별 누적 인원 현황을 보면, 국별연수, 기본연수, 특별연수 순이며, 학위과정의 인원수는 2007년부터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연수과정의 50% 이상이 지원되고 있는 국별연수의 경우는 한국의 비교우위 및 개발경험, 수원국의 국가개발계획, 타 공여국의 지원현황 등을 반영하여 선정된 국별 중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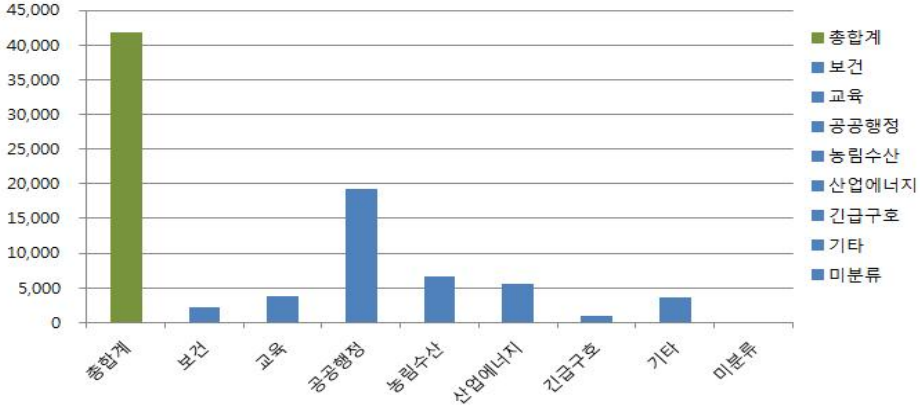
원 프로그램(부록1 참조)과 일치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표 3-2〉 연수형태별 현황(2007~2011)

연도	국별연수		기본연수		특별연수		공동연수		학위과정	
	인원	과정 수	인원	과정 수	인원	과정 수	인원	과정 수	인원	과정 수
2007	1,651 (49.4%)	126 (52.5%)	961 (28.8%)	66 (27.5%)	264 (7.9%)	17 (7.1%)	354 (10.6%)	25 (10.4%)	110 (3.3%)	6 (2.5%)
2008	2,121 (51.6%)	156 (53.8%)	1,087 (26.5%)	76 (26.2%)	442 (10.8%)	29 (10.0%)	302 (7.3%)	22 (7.6%)	157 (3.8%)	7 (2.4%)
2009	1,463 (41.3%)	108 (47.4%)	1,121 (31.6%)	59 (25.8%)	446 (12.7%)	31 (13.6%)	339 (9.6%)	23 (10.2%)	171 (4.8%)	7 (3.0%)
2010	1,913 (45.0%)	125 (47.5%)	918 (21.7%)	53 (20.2%)	720 (16.9%)	48 (18.2%)	475 (11.2%)	27 (10.3%)	220 (5.2%)	10 (3.8%)
2011	2,297 (52.6%)	150 (53.9%)	907 (20.8%)	59 (21.3%)	491 (11.3%)	33 (11.9%)	383 (8.8%)	22 (7.9%)	281 (6.5%)	14 (5.0%)
합계	9,445 (48.2%)	665 (51.2%)	4,994 (25.2%)	313 (24.1%)	2,363 (12.1%)	158 (12.2%)	1,853 (9.6%)	119 (9.1%)	939 (4.9%)	44 (3.4%)

자료: 한국국제협력단 통계시스템 홈페이지(<http://stat.koica.go.kr/>), 검색일자: 2013.7.10.

전체 연수프로그램 중 분야별 과정은 교육, 보건의료, 행정제도, 지역개발, 정보통신, 산업 에너지, 환경/여성으로 구성된다. 2011년 분야별 연수생 초청 실적을 살펴 보면, 한국은 연수의 전이 효과를 높이기 위해 비교우위 분야로서 행정제도 분야에 많은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농림수산, 산업에너지 순이다.



자료: 2011 KOICA 대외무상원조실적 통계 참조.

〈그림 3-4〉 분야별 연수생 초청 사업(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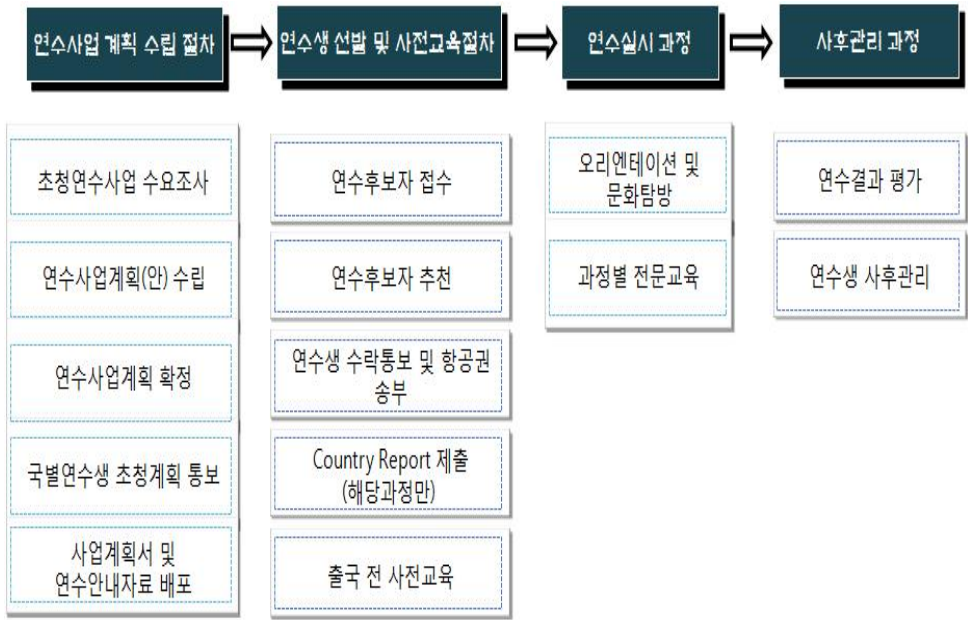
연수사업 기간은 개도국 인적자원개발 및 한국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다국가를 대상으로 단년도(1년)로 시행하는 다국가 단기 연수사업과 다년간(3년)에 걸쳐 특정 수원기관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통한 기관 차원의 역량강화를 하는 다년간 국별연수사업이 있다.

다국가 단기 연수사업 추진절차는 ① 연수사업 계획 수립, ② 연수생 선발 및 사전교육절차, ③ 연수실시, ④ 사후관리 단계로 진행된다. 다국가 단기연수는 다국가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초청규모는 약 20여 명 이내, 연수기간은 보통 3~6주이다. n년도 연수사업 계획은 재외공관 및 KOICA 현지 사무소 등을 통해 개도국, 국제기구 등을 대상으로 파악한 수요조사를 토대로 수립된다. 보통 n-2년도 3/4분기에 국내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4/4분기에 수원국 현지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한국의 정부부처 및 KOICA 해외사무소를 통해 실시된 국내 및 수원국 수요조사를 토대로 해당연도 연수사업에 대한 외교부의 승인 후 보통 해당연도 1~2월에 KOICA의 지명 또는 공모제로 연수사업계획(연수기간, 국별 배정인원 등 포함)이 확정됨과 동시에 연수기관에 통보한다. 연수개시 4개월 전에 KOICA는 연수기관과 작성한

연수과정에 대한 사전정보인 과정안내서(Course Information)를 참가국에 송부하고 연수생 선발을 요청한다. KOICA와 연수기관은 연수사업 운영에 필요한 착수회의를 연수개시 3개월 전에 실시하고, 이후 연수과정의 세부적인 내용 및 구성을 기획한다. 이를 토대로 연수기관은 과정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연수개시 1개월 전까지 KOICA에 송부한다. 연수개시 10일 전에 KOICA는 연수기관과 연수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이후 연수기관을 주축으로 보통 3~6주간 연수가 시행된다.

연수실시 과정에서 오리엔테이션은 주로 한국의 개발 역사와 한국 ODA사업, 기초 한국어와 한국생활 소개 등을 통해 한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한국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별보고는 연수생들이 자국의 분야별 현황과 이슈를 공유하고, 연수과정을 통해 습득한 지식, 기술, 경험의 실질적 적용방안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교육은 산업시찰과 문화체험을 포함하여 연수과정에 알맞은 강의, 실습, 현장견학 등을 통해 한국의 분야별 개발경험과 전문성을 공유하고 습득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 연수생들이 연수과정을 통해 얻은 지식과 기술을 향후 자국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 연수생들의 계획을 발표하는 액션플랜 시간을 가진다.

연수종료 후 한국국제협력단과 연수실시기관이 공동으로 연수결과 평가를 실시한다. 이는 주로 연수내용에 대한 연수생들의 만족도 조사 위주로 평가되고 있다. 연수과정에 대한 연수생들의 최종평가 및 건의사항을 듣고, 차년도 연수계획 및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연수 이후 연수생의 사후 관리를 위하여 수원국의 연수생동창회를 구성하고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료: KOICA 홈페이지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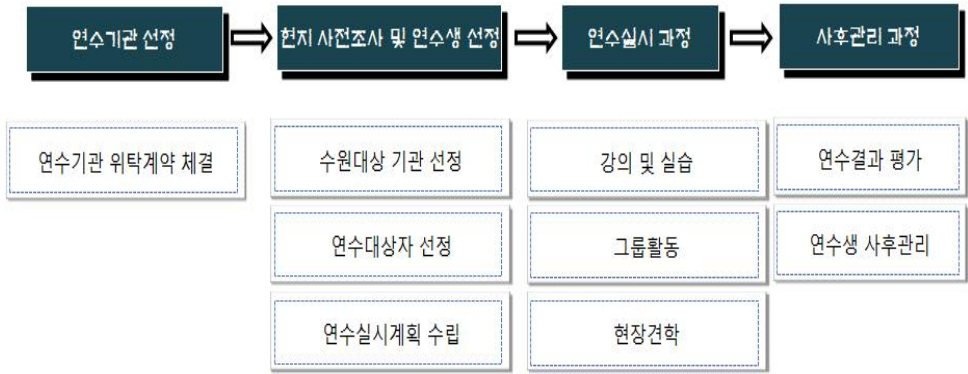
〈그림 3-5〉 다국가 단기 국내초청연수사업 추진절차 및 방법

KOICA는 2013년부터 연수효과 제고 및 성과중심의 연수 추진을 위해 다년간 연수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하고 있다. 다년간 국별 연수는 3년에 걸쳐 특정 지역의 소수 국가 3~4개국을 대상으로 국내초청연수, 현지 워크숍, 온라인자문,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는 프로젝트형 사업이다. 국내초청연수기간은 보통 3~6주이며, 초청연수 규모는 20여 명 이내이다. 다년간 국별 연수의 추진절차는 ① 연수기관 선정, ② 현지 사전조사 및 연수 참가기관참가자 선정, ③ 연수실시, ④ 사후관리 단계로 진행된다. 연수기관 전문가와 KOICA는 현지 사전조사 전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사전 조사 동안 체크리스트 조사결과를 확인 및 보완하며, 연수의 세부적인 테마를 수립하고, 수원 대상기관 선정 및 사업 책임자를 파악하고, 수원기관과 사업내용(연수별 연수 희망시기 및 인원 포함)을 협의 및 확정하며, 사업실시 약정을 체결한 후 연수대상자를 선정한다. 보통 각 분야에 맞는 참가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고위급

연수, 관리자급 연수, 실무자급 연수에 따라 연차별 과정을 구성한다. 현지 사전조사 기간은 실질적으로 약 3일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지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연수기관은 3년간의 다년도 연수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1차 연도에 다년간 연수사업 제안서를 KOICA에 제출한다. KOICA는 연수사업 제안서를 수원국 연수기관에 송부하고, 연수생을 선발한다. 연수생은 연수실시 전 1차 연도에 국가보고서를 발표하고, 액션플랜을 개발한다. 2차 연도에는 액션플랜을 평가, 연장 및 수정하며, 3차 연도에는 향후 계획을 수립한다. 연수기관 선정에서 연수생 선정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약 2달 정도이다.

이후 연수기관과 KOICA는 연수를 시행하는데, 강의 및 실습, 그룹활동, 현장견학으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초청연수의 부족한 현장 경험과 지식을 보완하고 연수생 액션플랜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대상국 중 1~2국을 선정하여 가급적 3년 차에 연수기관과 수원기관은 현지연수(Local training and Workshop)를 1주일 내외로 운영한다.

KOICA와 연수실시기관이 연수실시 전, 후, 도중에 연수결과를 평가지를 통해 평가하는데, 연수 시작 전 프로그램을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목표에 대한 질문, 연수 중 강의에 대한 평가, 연수 종료 후 평가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KOICA와 연수실시기관은 내부적으로 강의에 대한 평가를 연수 도중에 시행한다. 이는 연수프로그램에 대한 연수생들의 평가가 주를 이룬다. 이후 내부적인 평가에서 그치지 않고 3년 간 과정 종료 후 최종평가를 시행한다. 이는 연수 전과정에 대한 연수생들의 최종평가 및 건의사항을 반영한다. 연수 이후 사후모니터링 단계에서 수원국으로 돌아간 참가자들이 자체적으로 액션플랜에 기반 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경우, KOICA 역량개발부는 KOICA 사무소와 협의하여 우수 현장사업계획서를 선정한다. 이후 우수 액션플랜 제안서를 작성한 국가에서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 우수 사업에 연간 과정당 1건, 1만 달러 내에서 지원한다.



자료: KOICA(2013), KOICA 연수사업 길라잡이 참조.

〈그림 3-6〉 다년간 국별 국내초청연수사업 추진절차 및 방법

나. 국립환경인력개발원(EHRD)

국립환경인력개발원(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EHRD)은 환경부 소속 교육 연수기관으로 환경관련 분야의 국제적 이슈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핵심환경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EHRD의 교육훈련은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수요자 중심의 고객지향적 맞춤형교육 실시, 문제해결중심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자기주도적 참여학습 분위기 조성, 측정분석 및 현장체험 교육 강화, 국제환경교육 확대 및 신규 프로그램 개발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⁴³⁾

EHRD 국제연수프로그램은 2005년 13개국 36여 명에서 시작하여 아시아, 태평양 지역뿐만 아니라 중남미아프리카 지역까지 확대해 2012년에는 43개국 300여 명의 환경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원하였다.

43)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홈페이지(http://ehrd.me.go.kr/sub_06/body03.asp) 참조, 검색일자: 2013.9.16.



〈그림 3-7〉 EHRD 국제연수프로그램 과정 수, 참가국 수, 참가인원

과정별로는 국제환경정책연수과정, 국제환경기술전문교육과정, 서울이니셔티브 리더십과정, 한중일 3국 공동환경교육훈련, 인도네시아 녹색성장을 위한 환경관리 과정, 중남미 저탄소 녹색성장과정, 환경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협력 MOU/IA, 환경 인재양성 국제워크숍 등이다.⁴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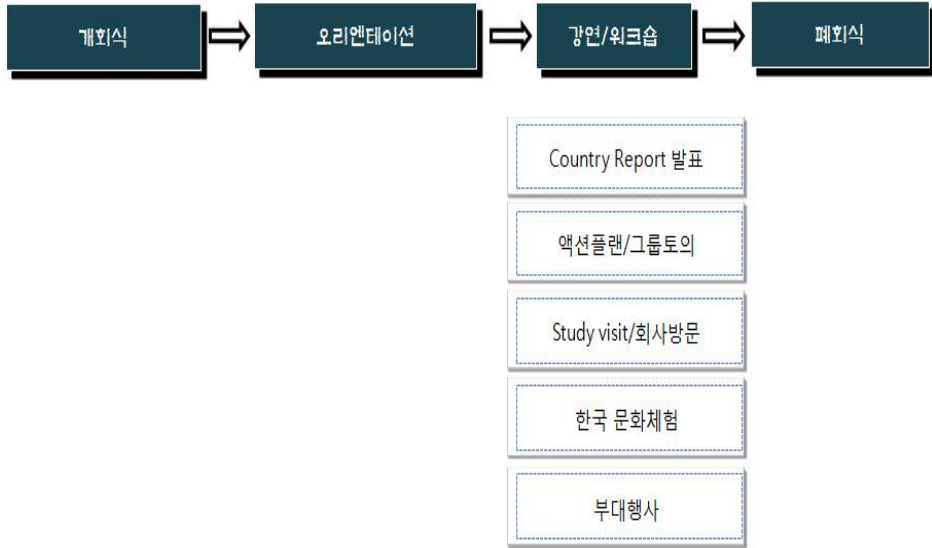
44)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홈페이지(<http://ehrd.me.go.kr>) 참조, 검색일자: 2013.9.17.

〈표 3-3〉 EHRD의 연수분야별 주요 연수과정

과정명	목적	교육대상자	기간	누적 참가자 수	누적 참가자 수
국제환경정책연수과정	-더 나은 환경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환경정보 및 경험 공유 -첨단환경기술 공유 -지속가능발전 및 녹색성장 전략 기여	아시아 등 신흥산업국 환경관련 공무원	2005~12	109	159
국제환경기술전문교육과정	-환경산업체 진출대상국과 한국의 우수 환경기술, 환경정책 공유	환경산업 진출 및 진출예정국 환경관련 공무원	2008~12	54	200
서울이니셔티브 리더십 과정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들의 '녹색성장' 을 달성하기 위해 환경정책 수립집행능력 향상	UNESCAP 회원국 환경관련 고급공무원	2006~12	111	148
한·중·일 3국 공동환경교육훈련	-한·중·일 사이에 환경문제 및 정책에 대한 정보 공유 네트워크 설정	한·중·일 환경관련 공무원	2001~12	한중일 순매년 개최	한중일 20
인도네시아 녹색성장을 위한 환경관리과정	-기후변화 및 녹색성장에 대한 선도적 대응 -한국-인도네시아 환경협력기반 강화	인도네시아 환경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	2013	인도네시아	17
중남미 저탄소 녹색성장과정	-KOICA 연계 연수사업 -소수의 수원국을 대상으로 다년간 집중적맞춤형으로 실시하는 다년간 씨앗(CIAT) 프로그램 시행	중남미 환경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	2013~15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N/A
환경 인적 자원개발을 위한 협력 MOU/IA	-MOU/IA 계약국 간의 다자 간, 양자 간 협력 및 파트너십 촉진	베트남, 캄보디아, 파키스탄, 스리랑카와 MOU, 인도네시아와 IA	2010~12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스리랑카	N/A
환경인재양성 국제워크숍	-각국의 환경교육 현황 이해 -MOU/IA 후속조치 논의	MOU 체결국 환경 관련 공무원	2010~13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N/A

자료: 국립환경인력개발원 내부자료 및 홈페이지(<http://ehrd.me.go.kr>) 참조, 검색일자: 2013.9.10.

EHRD의 국제환경교육의 주요 프로그램 절차는 오리엔테이션, 강연, 국가별 보고서 발표, 액션플랜 그룹 토의, 현장방문, 한국문화 체험 등으로 구성되어 추진되고 있다 (그림 3-8 참조).



자료: 국립환경인력개발원 내부자료 참조.

〈그림 3-8〉 국제연수 프로그램 모듈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은 환경분야에 집중하여 8개 과정을 약 1~4주간의 단기적인 집중교육을 통해 환경프로그램의 기획 및 관리 능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짧은 시간적 제한으로 인해 연수사업의 주요 목적은 수원국과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 및 우호협력관계 증진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한국의 환경산업의 해외진출 토대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

3. 국내 연수사업의 비교 및 시사점

본 절에서는 국내 주요 연수기관인 KOICA와 환경분야의 역량강화에 주력하는 EHRD 기관의 연수사업의 비교를 통해 그 차이점 및 장·단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KOICA의 경우 크게 단기연수 및 다년간 연수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으며 EHRD의 경우 단기 연수사업만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연수사업의 목적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데 KOICA와 EHRD의 단기연수사업의 경우는 연수사업의 목적이 수원국과 한국 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확산, 이를 토대로 한국의 환경산업 해외진출 기반 마련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어 지원효과의 지속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또한 단기연수는 수원국의 국별현황, 국별보고서의 사전 제출을 통해 수원국의 수요를 파악하지만 사전제출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연수 초반에 국별보고서 발표세션을 마련하지만 단시간에 수원국의 수요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KOICA는 UN 등 국제기관에서 지향하고 있는 역량강화의 지원 효과성의 지속성 제고에 부합하기 위해 2013년부터 다년간 연수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다년간 연수는 현지 사전조사 전에 미리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현지 사전조사 시 조사내용을 구체화하여 연수의 세부적인 테마, 수원기관 및 분야에 적합한 참가대상자 파악 및 선정에 반영한다.

투입수단에서도 차이를 보이는데, 다국가 단기연수는 국내초청연수를 단년도, 일회성에 그치고 있는 반면 다년간 국별 연수는 국내초청연수를 기본으로 하되 그 외에 현지연수, 현장사업 추진 경비 지원 등을 하여 일관된 연수를 지향하고, 개인의 역량뿐만 아니라 특정 수원기관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통한 조직 차원의 역량 강화 및 가능한 환경 조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사후 모니터링 및 연수생 사후관리 체계에서 다년간 국별연수는 현장사업 지원 및 성과보고회 등 수원기관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다국가 단기연수의 연차평가를 보완하고 있다.

〈표 3-4〉 KOICA와 EHRD의 연수사업 비교

구분	KOICA		EHRD
	다국가 단기연수	다년간 국별연수	
연수목표	개도국 인적자원개발, 한국 네트워크 구축 및 확산, 개인의 역량 강화	개인 및 특정수원기관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기관 차원의 역량 강화 및 발전 환경 조성	개도국 인적자원개발, 한국의 환경산업의 해외진출 토대 마련
연수기간	3~6주	3~6주	1~4주
투입수단	국내초청연수	국내초청연수, 현지워크숍, 온라인자문, 시범사업 추진 지원, 성과보고회 개최	국내초청연수
수요조사 방식	정부부처 및 수원국의 제안	현지 사전조사를 통한 구체적인 수요 파악	정부부처 및 수원국의 제안
장점	다국가 수요 충족	맞춤형 연수 가능, 다년간 연수지원을 통한 연수효과의 지속성 기대	환경분야에 특화된 연수과정 운영
단점	수원국의 수요파악을 위한 시간과 비용의 제약	수원국의 수요파악을 위한 시간과 비용의 제약	지원효과의 단발성

그러나 다년간 국별연수는 2013년부터 시작(2013년 기준 총 37개 사업)되었기 때문에 아직 3년간의 최종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여서 본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어려우나 여전히 단기기간의 사전조사 수행 등 대상 수원국의 기존 역량평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연수사업 자체의 성과 평가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연수사업에 의한 수원국의 역량발전 과정 모니터링 및 성과 평가 체계와 사후관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 제4장 · 주요 선진기관의 사례분석 |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의 Agenda 21에서 역량강화가 중요한 개념으로 인식되면서 1998년 UN 총회는 역량강화에 대한 UN 시스템 원조 영향 평가를 받았다. 이 평가는 UN총회의 3년마다 하는 정책 리뷰(모든 UN 시스템 개발 활동을 검토)의 일부로서 유엔경제사회국(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UNDESA)에 의해 수행되었다. 이후 역량강화는 글로벌 협약, 지구환경기금(Global Environmental Facility, GEF) 등 국제 커뮤니티 내에서 우선순위 활동이 되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GEF를 비롯한 국제개발협력정책에 가장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주요 공여국의 역량강화 지원 사업을 살펴보고 분석함으로써 개도국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우리나라의 역량강화 지원사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1. GEF

지구환경기금(Global Environment Facility, GEF)은 개도국들의 환경분야 투자 및 관련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1990년에 설립되었으며, 1991년 세계은행의 10억 달러 규모의 파일럿 프로그램에서 시작, 1994년 세계은행으로부터 독립, 영속적이고, 개별적인 기관으로 재편성되면서 UNDP, UNEP, 세계은행이 공동으로 관장하고 있다.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시행하기 위한 현실적인 틀을 제공하는 GEF에서의 역량은 환경 관리 시스템을 세계적 수준으로 강화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국가 거버넌스 및 관리 시스템을 토대로 구축된다.

GEF는 다자간환경협약(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MEAs)의 아젠다에서 역량개발을 필수적인 부분으로 정의하였다. UN 기후변화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FCCC)은 이행의 일부로 역량개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하였고,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Biological Diversity)의 전략적 계획 및 2010년

목표에서는 역량개발을 국가 이행 전략과 연계하여 필수적인 요소로 보고 있다. UN 사막화방지협약(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and Drought, CCD)과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 협약(Stockholm Convention on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도 역량개발을 강조하였다.

이후 이러한 협약들에서의 지침들은 개도국들의 역량 중요성을 증대시켰고, 특히 CBD와 FCCC 당사국 총회는 GEF에 최빈개도국 및 군소국가들을 포함한 개도국 주도의 역량개발 활동에 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2000년대 초, GEF 사무국(Secretariat)과 세 개의 이행기구(UNDP, UNEP, World Bank)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Strategic Partnership)을 통해 역량개발이니셔티브(Capacity Development Initiative, CDI)를 창설하였다. CDI는 역량개발 수요에서 관련 국가들이 우선순위를 두는 이슈를 확인하기 위한 협상과정으로 개도국 역량을 평가하고 개발하기 위한 프레임워크 구축 프로세스로 이를 통해 글로벌 환경 난제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과 액션플랜을 개발한다.

국가역량개발 원조를 강화하기 위해 제안된 CDI는 ‘GEF의 역량구축을 위한 전략적 접근법(GEF Strategic Approach to Enhance Capacity Building, 2003)’을 통해 역량개발을 이끌었다. GEF는 역량구축을 위한 전략적 접근법으로 국가적 수준에서 환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역량구축에 필요한 원칙 및 정책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이 접근법에는 국가 역량개발 액션플랜을 마련하고, 역량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국가역량자가평가(National Capacity Self-Assessment, NCSA) 프로그램⁴⁵⁾이 포함되어 있다. NCSA의 목적은 글로벌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역량강화에 대한 수요, 역량수준격차, 우선순위활동 등을 대상 국가 주도의 협의 프로세스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다. GEF 사무국은 Rio 협약 — 생물다양성 협약, UN 기후변화 협약, UN 사막화 방지 협약 — 을 고려하여 글로벌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 역량 수요 및 우선순위활동을 표명할 수 있도록 이행 기관들과 협력하여 NCSA를

45) GEF, UNITAR(2001), A Guide for Self-Assessment of Country Capacity Needs for Global Environmental Management, pp.1-7.

지원하고 있다. NCSA를 통해 달성될 목적은 세 주제 분야별(생물다양성, 기후변화, 사막화/토지 황폐화) 주요 액션 이슈를 확인, 검토하고, 관련 역량 수요를 탐구하고, 재정지원과 원조에 필요한 액션을 촉진시키며, 국가 액션을 국가 환경 관리 및 지속 가능한 개발 프레임워크에 연계시키는 것이다.

또한 GEF는 2007년 프로젝트 검토에서 프로젝트 시행 동안 프로젝트 모니터링 및 성과에 중점을 두는 성과중심관리접근법(Results-based-management approach, RBM)을 적용하였다. RBM은 1) 개입/참여 역량, 2) 정보 및 지식의 활용 역량, 3) 정책 및 법·제도 구축 역량, 4) 관리 및 이행 역량, 5) 모니터링 및 평가 역량에 따른 각각의 역량개발지수를 적용하여 역량발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역량성과⁴⁶⁾를 평가한다.



자료: GEF, UNDP, UNEP, Monitoring Guidelines of Capacity Development in GEF Operations
참조

〈그림 4-1〉 측정가능한 역량 분류

이와 같이 GEF는 측정 가능한 다섯 가지 역량평가지표를 활용하여 역량개발 발전과정 및 성과 달성도를 모니터링 및 평가한다. 즉, RBM을 토대로 개발된 역량 평가지수를 개별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 이행 전·후의 역량발전 과정의 모니터링 및 평가에 적용하여, 글로벌 환경 이슈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강화를 지원한다. <표 4-1>과 <표 4-2>는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수준의 역량개발평가표 예시이다.

46) GEF, UNDP, UNEP, Monitoring Guidelines of Capacity Development in GEF Operations, pp. 8~16.

〈표 4-1〉 프로젝트 수준의 역량개발평가표

Project/Programme Name:		Project/Programme Cycle Phase:		Date:		
Capacity Result/ Indicator	Staged Indicators	Rating	Score	Comments	Next Steps	Contribution to which Outcome
CR 1: Capacities for engagement						
Indicator 1 – Degree of legitimacy/mandate of lead environmental organizations	Organizational responsibilities for environmental management are not clearly defined	0				
	Organizational responsibilities for environmental management are identified	1				
	Authority and legitimacy of all lead organizations responsible for environmental management are partially recognized by stakeholders	2				
	Authority and legitimacy of all lead organizations responsible for environmental management recognized by stakeholders	3				
Indicator 2 – Existence of operational co-management mechanisms	No co-management mechanisms are in place	0				
	Some co-management mechanisms are in place and operational	1				
	Some co-management mechanisms are formally established through agreements, MOUs, etc.	2				
	Comprehensive co-management mechanisms are formally established and are operational/functional	3				
.....Add your own indicator(s)						
CR 2: Capacities to generate, access and use information and knowledge						
.....Add your own indicator(s)						
CR 3: Capacities for strategy, policy and legislation development						
.....Add your own indicator(s)						
CR 4: Capacities for management and implementation						
.....Add your own indicator(s)						
CR 5: Capacities to monitor and evaluate						
.....Add your own indicator(s)						

자료: GEF, UNDP, UNEP, Monitoring Guidelines of Capacity Development in GEF Operations p.18.

〈표 4-2〉 프로그램 수준의 역량개발평가표

Capacity results	Contributing to which Strategic Objectives	Start	Project 1 Mid-term	End	Start	Project n Mid-term	End	Average change at mid-term	Average change at end	Average change overall
CR 1 Capacity for engagement	a, b, c, ...	0	1	3	1	1	2	0,5	1,5	2
CR 2 Capacity to generate, access and use information and knowledge	b, c, ...	1	2	2	2	2	2	0,5	0	0,5
CR 3 Capacity for strategy, policy and legislation development	a, c,	2	1	2	2	2	3	-0,5	1	0,5
CR 4 Capacity for management and implementation	d	1	2	3	1	2	3	1	1	2
CR 5 Capacity to monitor and evaluate	c, d, ...	1	1	1	1	1	1	0	0	0

자료: GEF, UNDP, UNEP, Monitoring Guidelines of Capacity Development in GEF Operations p.24.

2. JICA

일본국제협력기구(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는 개도국에 대한 경제·사회적 협력을 목적으로 세계 전역의 개도국에 대한 기술 협력, 무상자금 협력, 노동자 원조, 기계 공여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개도국에 대한 정부 중심 기술 협력은 연수나 전문가 파견 등의 형태로 이뤄진다.

JICA의 연수사업 형태인 훈련 및 대화 프로그램은 개도국의 특별 요청에 의해 수행되는 국가 중심 프로젝트(Projects for Country Focused Training and Dialogue), 일본이 개도국에 제안하여 수행되는 훈련 및 대화 프로그램(Training and Dialogue Programs), 미래 세대를 이끌어 나갈 영 리더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Programs for Young Leaders) 등이 있다. 이 가운데 훈련 및 대화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개도국의 요청을 기반으로 하는 ODA와는 달리 비교우위에 있는 재해 방지 및 환경보존과 같은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일본의 가치를 전달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사용되곤 한다.

2010년 JICA의 훈련 및 대화 프로그램의 총 참석자 수는 11,113명이며, 훈련 및

대화 프로그램(Training and Dialogue Programs)은 581개의 과정에 총 4,328명이 참석하였고, 국가 중심 프로젝트는 703개의 과정에 총 3,720명이 참석하였으며, 영리더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Programs for Young Leaders)은 88개의 과정에 총 1,460명이 참석하였다.



자료: JICA Training Affairs and Citizen Participation Department/ JICA 홈페이지 - Types of Assistance(http://www.jica.go.jp/english/our_work/types_of_assistance/tech/acceptance/training/about/structure.html)
 검색일자: 2013.9.4.

〈그림 4-2〉 JICA 훈련 및 대화 프로그램의 과정 수와 참석자 수

2010년 JICA의 훈련 및 대화 프로그램의 분야별 프로젝트 수를 살펴보면, 농업/농촌 개발 분야의 프로젝트 수가 72개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은 66개 프로젝트의 환경

관리 분야이며, 뒤이어 민간부문 개발, 수자원/재해관리 분야 순이다.

〈표 4-3〉 JICA 훈련 및 대화 프로그램의 분야별 프로젝트 수

분야	프로젝트 수	분야	프로젝트 수
교육	46	자연보존	23
보건	75	수산업	9
수자원/재해관리	47	성평등과 발전	4
거버넌스	39	도시/지역 개발	34
평화구축	1	빈곤퇴치	1
사회안보	17	환경관리	66
수송	28	원조접근(Aid Approach)	5
정보통신기술(ICT)	24	평가	1
천연자원 및 에너지	24	남-남 협력	1
경제정책	7	시민참여	0
민간부문개발	56	기타	1
농업/농촌 개발	72	총계	581

자료: Outline of Training and Dialogue Programs/ JICA 홈페이지 - Types of Assistance,
http://www.jica.go.jp/english/our_work/types_of_assistance/tech/acceptance/training/about/structure.html
 검색일자: 2013.9.4.

JICA의 훈련 및 대화 프로그램의 개발 과정은 6단계⁴⁷⁾이며, 실질적인 이행 이전단계와 이행 이후 실행성과에 관한 평가절차로 이루어진다.

1단계는 과정형성이다. 과정은 3년 단위로 추진되며, 1년에 한번 일본에서 진행된다. 매년 3월부터 7월까지, 다음 해에 시작될 과정들을 검토하며, 진행 중인 과정들의 콘텐츠에 대해 세심한 계획을 세운다. JICA의 국내 사무소와 해외 사무소는 협력하여 과정의 세부사항들을 점검하고, 제안서를 준비한다.

2단계는 과정검토 및 요청조사(Course Scrutiny and Request Survey)로 매년 8월부터 10월 사이에 진행된다. 과정검토 단계에서는 내부적으로 제안서를 검토하는데, 이때 과정이 일본 현지에서 실시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어떻게 적절하게 이행될

47) 자료: JICA 홈페이지 - Types of Assistance
http://www.jica.go.jp/english/our_work/types_of_assistance/tech/acceptance/training/about/process.html,
 검색일자: 2013.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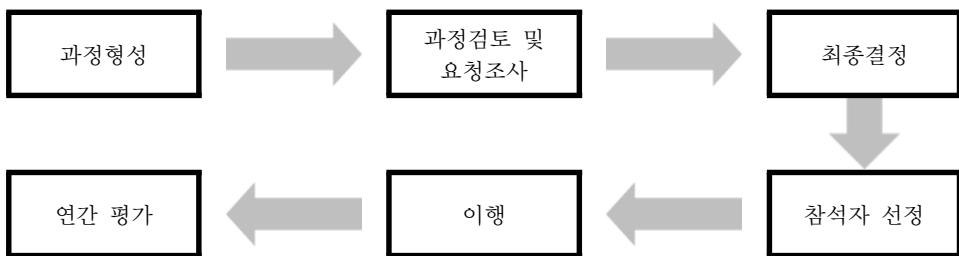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고려한다. 또한 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요청조사 단계에서는 일본 대사관과 JICA 해외 사무소가 공동으로 다음 해 개도국의 참여 의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한다.

3단계는 최종결정(Final Decision)이다. 매년 12월에 과정검토에서의 타당성 조사와 요청조사에서의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일본 외무성이 과정에 대한 최종결정을 하고, 그 결과는 각 개도국에 공지한다.

4단계는 참석자 선정(Selection of Participant)이다. JICA는 과정에 대한 일반 정보를 개도국의 참석자에게 보낸다. 개도국 정부는 해당 수원국이 가지고 있는 이슈와 프로그램의 콘텐츠를 고려하여 기관과 후보자를 추천하여 JICA에 보낸다. 일본은 이러한 것을 고려하여 참가할 기관과 후보자에 대한 최종결정을 한다.

5단계는 이행이다. 선정된 기관과 개인을 대상으로 JICA 국내 사무소들은 일본 초청연수사업을 실시한다. 과정의 이행은 공공기관, 지방정부, 민간부문 기업, 전 세계 NGO 등과 협력하여 추진된다.

6단계는 연간 평가이다. 모든 과정의 이행 상황은 매년 평가되며, 평가 결과를 통해 프로젝트의 효과성을 제고시킨다.



자료: JICA 홈페이지- Types of Assistance,
 (http://www.jica.go.jp/english/our_work/types_of_assistance/tech/acceptance/training/about/process.html),
 검색일자: 2013.9.4.

<그림 4-3> JICA 훈련 및 대화 프로그램의 추진절차

JICA 훈련 및 대화 프로그램은 전통적으로 인적자원 개발에 목표를 두고 있으며, 이러한 전통적인 훈련 프로그램은 최근 수원국의 훈련 수요가 증대되면서 효율성 측면에서 검토되고 있다. 한편 수원국도 일본의 경험을 이용하여 특수 이슈(수원국 기관 운영에 있어 새로운 제도/시스템 도입 또는 그 개선)에 대해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 구축하기 위해 관련 인사를 일본에 보낸다. 그러므로 최근 JICA의 훈련 프로그램의 목표는 수원국이 일본의 훈련 프로그램의 장점을 잘 활용하여 용이하게 스스로 해결책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개인 참석자의 역량 강화 보다는 수원국 기관의 역량 강화를 중시하고 있다. 이런 연유로 JICA는 프로그램 시행 전 ‘준비 단계(preliminary phase)’, 참석자가 고국으로 돌아간 뒤에 행해지는 ‘완료 단계(Finalization Phase)’ 프로그램이 완료된 후 이루어지는 ‘후속협력(follow-up cooperation)’으로 프로그램 방법론을 확대 적용하고 있다. 후속협력의 대표적인 사례는 동문협의회(Alumni Associations) 지원인데, 이는 이전에 일본 훈련프로그램에 참석했던 자들이(ex-participants) 고국으로 돌아가 동문협의회(Alumni Associations)를 구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JICA 훈련 및 대화 프로그램은 최근 다양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프로그램의 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해 네 가지 표준 카테고리(standard categories)로 분류하여 추진하고 있다.

〈표 4-4〉 JICA 훈련 및 대화 프로그램의 유형

표준 유형	목표
리더 훈련 프로그램 (Leaders Training Programs)	소속기관의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인사나 특화된 분야 인사의 역량 강화에 목표를 두고 있다.
트레이너 훈련 프로그램 (Trainers Training Programs)	소속기관의 중간계층의 인사 특히 교사, 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 프로그램은 참석자 스스로의 역량을 개발하게 하고, 프로그램 참석자를 통해 최종 수혜자는 지식과 기술을 얻게 하는 것을 목표로 시행된다.
솔루션 창출 프로그램 (Solution Creation Programs)	조직운영 개선, 정치적 조치 마련, 시스템 구축 등과 같은 조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표로 시행된다. 파트너 국가가 일본의 경험을 활용하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고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국제 대화 프로그램 (International Dialogue Programs)	지역적 또는 글로벌 문제와 관련된 경험을 공유하고, 새로운 지식을 개발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 국제적인 대화와 국제적인 네트워크 창출을 촉진시킨다.

자료: Outline of JICA Training and Dialogue Programs in Japanese Fiscal Year 2010, Courses Starting Between April 2010 and March 2011, p.5.

JICA 훈련 및 대화 프로그램의 콘텐츠는 ‘일본식(Japanese Way)’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일본식 특정 경험과 지식은 조직 및 인사 관리 시스템에서 지방행정 개선과 같은 사회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물론 일본의 상황과 수원국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본 고유의 경험과 지식을 수원국에 적용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나 수원국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신만의 접근법과 방법들을 고안해 낼 때 유용한 촉매제로써 일본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최근 JICA는 일본 고유의 경험과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고 있다. 또한 JICA는 파트너 국가들이 일본식 고유의 경험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학습자료를 개발⁴⁸⁾하고 있다.

JICA 훈련 및 대화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평가가 진행되는데, 평가 결과의 세 가지

48) JICA(2010), Outline of JICA Training and Dialogue Programs in Japanese Fiscal Year 2010, Courses Starting Between April 2010 and March 2011, p.7.

기준은 정책 관련성, 결과의 효율성, 과정의 적절성⁴⁹⁾이다.

정책 관련성에서는 일본의 ODA와 외교정책과의 일치여부, 수원국 수요와의 부합 여부, 일본 현지 수행 정당성, 글로벌 개발 아젠다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다.

결과의 효율성에서는 훈련 프로그램이 수원국의 인적자원개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수원국의 이전 참석자의 활약성 기대, 일본 커뮤니티를 통한 지역개발 등이 평가에 포함된다.

과정의 적절성에서 평가하는 항목들은 기획 및 이행 과정과 이행 구조의 타당성, 훈련 과정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과정의 타당성, 모니터링·평가·후속조치의 적합성 여부이다.

이러한 평가는 외무성과 JICA로 이루어지는 내부 연수사업평가와 더불어 제3의 평가기관에게 평가를 의뢰하거나 전문가들을 외부평가단에 포함시켜 보다 객관적인 해외연수 사업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JICA와 외무성이 보고한 내부 자체평가와 비교 분석되어 차후 유사한 연수사업 실행 시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3. SIDA

스웨덴은 1971년 「국제개발협력법(Act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을 제정하여 원조에 대한 법적, 정치적 틀을 마련하였으며, 2011년 OECD DAC 회원국 중에서 ODA/GNI 비중(1.02%)⁵⁰⁾이 가장 높은 국가이다.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Swed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y, SIDA)은 스웨덴의 개발 원조를 총괄하는 외교부 산하 원조기구로 1995년 7월에 설립되었다. SIDA는 세계의 빈곤 감축과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글로벌 개발⁵¹⁾이라는 스웨덴의 개발협력을 목표로 스웨덴 의회와 정부를 대신하여 스웨덴의

49) Evaluation of Training and Dialogue Programs –Summary– February 2012, Global Link Management, Inc. entrusted by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MOFA) of Japan, pp.8-14.

50) OECD 홈페이지-Newsroom: (Development: Aid to developing countries falls because of global recession, 2012.4.4), <http://www.oecd.org/newsroom/developmentaidtodevelopingcountriesfallsbecauseofglobalrecession.htm>, 검색일자: 2013.8.11.

글로벌 개발정책(Sweden's Policy for Global Development, PGD) 이행에 따라 원조를 시행하고 있다. 주로 양자 간 원조를 담당하고 있으며, 개도국과의 직접적인 협력을 지원하고 있다. 2011년 스웨덴 전체 개발협력 원조 예산이 352억 SEK였는데, 이 중 175억 SEK가 SIDA를 통해 집행되었으며, 나머지 절반은 스웨덴 외교부를 통해 집행⁵²⁾되었다.

SIDA의 5개 주요 개발협력분야는 <표 4-5>와 같다.

<표 4-5> SIDA의 개발협력 5개 중점 분야

분 야
민주주의, 양성평등 및 인권존중 (Democracy, equality and human rights)
경제성장 (Economic development)
지식, 보건 및 사회개발 (Knowledge, health and social development)
지속가능한 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
평화와 안보 (Peace and security)

자료: SIDA 홈페이지-About us: Our fields of work
(<http://www.sida.se/English/About-us/our-fields-of-work/>), 검색일자: 2013.8.9.

SIDA에서 실시하고 있는 역량개발 활동은 크게 스웨덴 스스로의 역량강화를 위한 SIDA 파트너십 포럼(Sida Partnership Forum, SPF)과, 개도국의 역량강화를 위한 초청연수사업인 국제훈련프로그램(International Training Programmes, ITP)

51) Ministry for Foreign Affairs(2008), Global Challenges-Our Responsibility: Communication on Sweden's policy for global development, p.6.

52) SIDA 홈페이지-About us: How we operate
(<http://www.sida.se/English/About-us/How-we-operate/>), 검색일자: 2013.8.9.

이 있다.

SPF는 개발협력행위자들 간의 원조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스웨덴의 기업, 정부, 공공기관, 학회 등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개발에 관한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여 새로운 관점과 아이디어를 찾는 것에 중점을 둔다. 2013년 SPF의 코스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6월 12~17일에 개최되는 여름 아카데미(Summer Academy), 9월 16~20일에 개최되는 인도주의적 행동의 도입(Introduction to Humanitarian Action, IHA), 11월 6~8일에 개최되는 환경 보기 - 도입 과정(The Environmental Lens - Introduction course)이 있다.⁵³⁾ 여름 아카데미는 환경,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의 지속가능성을 살펴보는 자리다. IHA는 장기간 개발로서 조직뿐만 아니라 개인이 취해야 할 인도주의적 행동에 대한 교육을 목표로 하며, 환경보기 - 도입 과정은 프로젝트/프로그램에서의 환경영향 및 지방의 환경문제에 중점을 두는 훈련과정이다.

ITP는 주로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유럽(동유럽)과 중앙아시아 등의 국가를 대상으로 하여 개도국의 조직적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스웨덴 내 3~4주 연수를 시행하고, 연수실시 6개월 후 6~10일간 지역세미나를 개최한다. SIDA는 다수의 연수기관과 계약하여 ITP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ITP 연수 프로그램은 스웨덴 공공기관, 대학, 민간회사, NGO 등에 의해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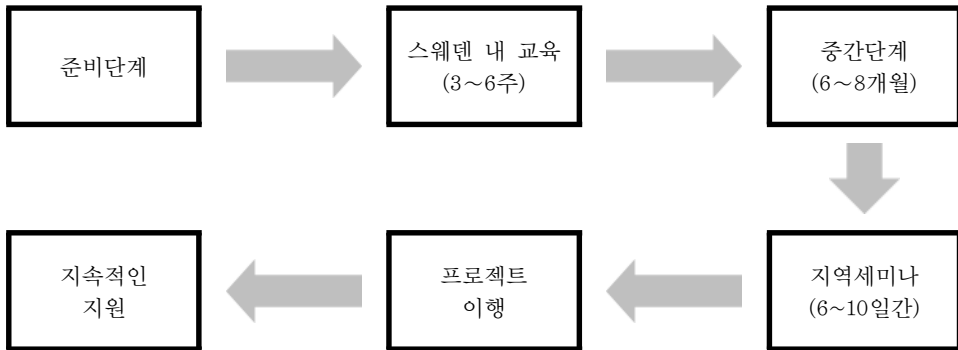
ITP의 추진절차는 총 19단계로 이루어진다.⁵⁴⁾ 1~2단계에서 연수시행 전년도 5월 말에 내년 국가/프로그램 리스트를 스웨덴 대사관들 및 각 지역사무소들에 송부하고, 이들의 협의를 통해 프로그램 우선순위를 선정한다. 3~4단계에서 SIDA는 9월 말 또는 10월 초에 n+1년도 프로그램 카탈로그 및 ITP에 관한 소식을 스웨덴 대사관들, 각 지역사무소들 및 관련 기관들에 배포한다. 5~9단계는 연수생을 선발하기 위한 준비단계로 ITP 연수기관은 연수개시 4~6개월 전에 프로그램 브로셔

53) SIDA 홈페이지- For partners: Courses and training

(<http://www.sida.se/English/Partners/courses-and-training/>), 검색일자: 2013.9.2.

54) SIDA(2004), Guidelines for ITP administration.

및 지원서를 스웨덴 대사관들 및 각 지역사무소들에 배포하며, 이에 대한 응답으로 지원자들은 지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10~12단계는 연수생을 최종결정 및 통보하는 단계로 연수생 선발은 연수개시 3~4개월 전에 ITP 연수기관이 담당하며 SIDA는 최종 승인권한만을 가지고 있다. 연수생 통보는 연수개시 최소 1개월 전에 이루어진다. 13~14단계는 스웨덴 내에서 연수를 시행하는 단계로, 개도국의 연수대상자들을 스웨덴에 초청하여 평균 3~6주의 연수를 시행하는데, 본 연수는 강의, 워크숍, 현장학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5~19단계는 초청연수 실시 6개월 후 6~10일간 현지에서 개최되는 지역별 활동과 참여대상자들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후속활동을 시행한다. 지역별 활동은 참가국 중 한 국가에서 후속회의 형식으로 시행한다. 이러한 ITP 연수과정은 경험과 교훈을 공유하기까지 전 과정을 단계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개인의 역량뿐만 아니라 실제 개도국 스스로 조직, 분야별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다단계 프로그램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⁵⁵⁾



자료: KOICA(2010), 연수생 초청사업 효과성 평가 보고서, p.101.

〈그림 4-4〉 SIDA ITP의 추진절차

55) SIDA 홈페이지- For partners: Courses and training

(<http://www.sida.se/English/Partners/courses-and-training/>), 검색일자: 2013.9.2.

연수사업의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SIDA는 양자 간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수원국의 수요를 반영하고, 동시에 스웨덴이 전략적 우위에 있는 분야를 고려하여 연수주제를 선정하고 있다. International Training Programmes 2013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프로그램, 아프리카 프로그램, 아시아 프로그램, 유럽과 중앙아시아 프로그램, 중동과 북아프리카 프로그램과 같이 지역별로 연수과정을 추진하고 있다.

〈표 4-6〉 2013 ITP 프로그램

지역별	프로그램 명
글로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dustrial Property in the Global Economy -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Global Economy - Intellectual Property for Least Developed Countries -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Higher Education - Wind Power Development and Use(2) - UN Resolution 1325 Women, Peace and Security(2) - Strategic Environment Assessment - Integrated Sustainable Coastal Development(2) - Genetic Resources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2) - Labour Market Policies in Poverty Alleviation - ICT and Pedagogical Development - Child Rights, Classroom and School Management(2) - Efficient Energy Use and Planning(2)
아프리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isk Management in Banking - Public Service Management - Private Sector Growth - Strategic Business Management - Peace and Security in Africa - Strategies for Chemicals Management
아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ublic Service Management
유럽과 중앙아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nvironmental Governance and Management with EU-focus - Risk Management in Banking - Efficient Energy Use and Planning - Strategies for Chemicals Management
중동과 북아프리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 Resolution 1325 Women, Peace and Security - Integrated Sustainable Coastal Development

자료: International Training Programmes,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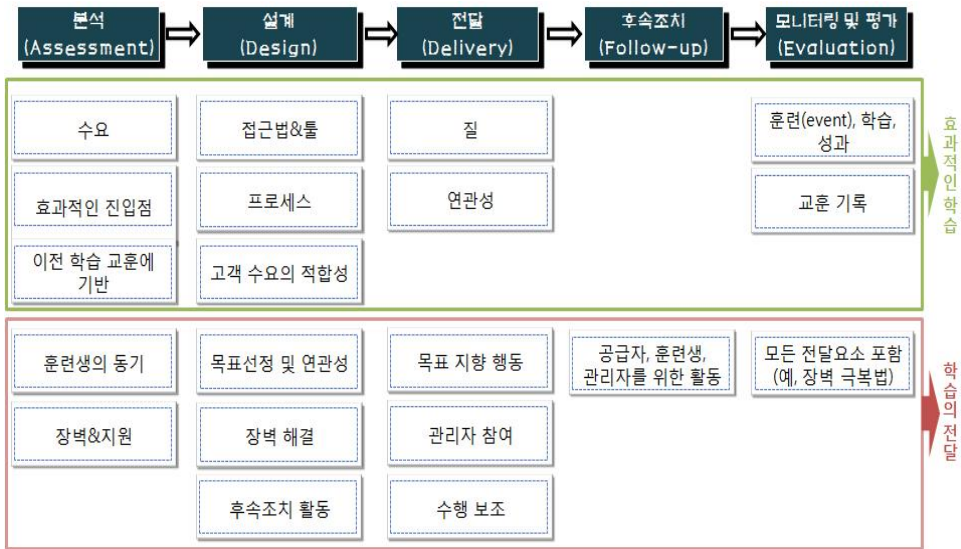
4. UN-HABITAT

UN-HABITAT(United Nations Human Settlements Programme)는 인류를 위한 적절한 주거지를 제공하고, 사회적,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설립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1978년에 만들어진 UN개발그룹 산하의 국제기구이다.

UN-HABITAT는 인구의 절반 이상이 도시 빈민 거주자로 거주지, 물, 위생, 교육, 보건 서비스의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을 위해 개인, 조직, 정책 등의 역량개발을 위한 훈련을 추진하고 있다. 역량개발 훈련은 UN-HABITAT의 2010년 연간 총지출 중 15~20%를 차지⁵⁶⁾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다. 1999년 시행된 아프리카 도시의 수자원 위기 대응과 수자원 및 위생 관리 제고를 위한 Managing Water for African Cities(WAC) 프로그램을 통해 관리자와 정책입안자의 활동이 중요함을 인식하게 되면서 개인, 조직, 정책적 및 법적 체계가 가능한 환경 등 다양한 수준에서 훈련을 개발시켰다.

UN-HABITAT의 훈련은 분석, 설계, 전달, 후속조치, 모니터링 및 평가로 5단계 추진절차로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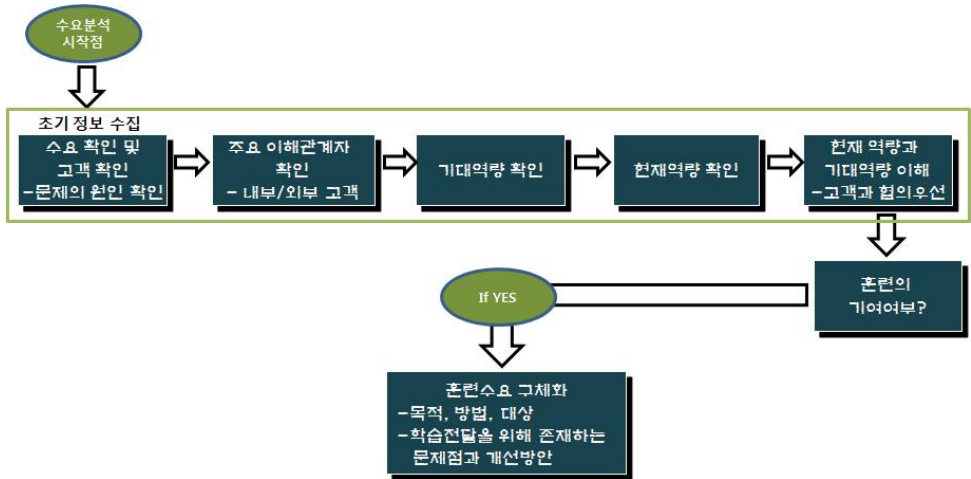
56) UN-HABITAT(2012), Training for better cities, p.6.



자료: UN-HABITAT(2012), Training for better cities, p.16.

〈그림 4-6〉 UN-HABITAT의 훈련 추진절차

분석 기간 동안 훈련생과 기관의 수요 파악 및 훈련목적 설정한다. 개인의 변화와 개선, 조직의 성과 향상을 목표로 하는 역량개발 훈련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훈련을 위한 학습목표가 잘 설정되어야 하고, 동시에 훈련 결과가 설정된 학습목표에 잘 부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UN-HABITAT는 명확한 학습목표 설정을 위해 훈련수요분석과 결과 및 목표의 부합성을 높이기 위한 훈련결과평가 매뉴얼인 Manual Training Needs Assessment and Training Outcome Evaluation in an Urban Context(2012)를 통해 좀 더 세부적이며 실용적인 평가를 한다. 효과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단계는 훈련수요를 분석하는 것으로 수요 확인, 주요이해관계자 확인, 기대역량 확인, 현재역량 확인, 현재역량과 기대역량 이해, 훈련의 기여여부, 훈련 수요구체화로 총 7단계의 과정을 거친다.



자료: UN-HABITAT(2012), Manual Training Needs Assessment and Training Outcome Evaluation in an Urban Context, p.15.

〈그림 4-7〉 UN-HABITAT의 훈련수요분석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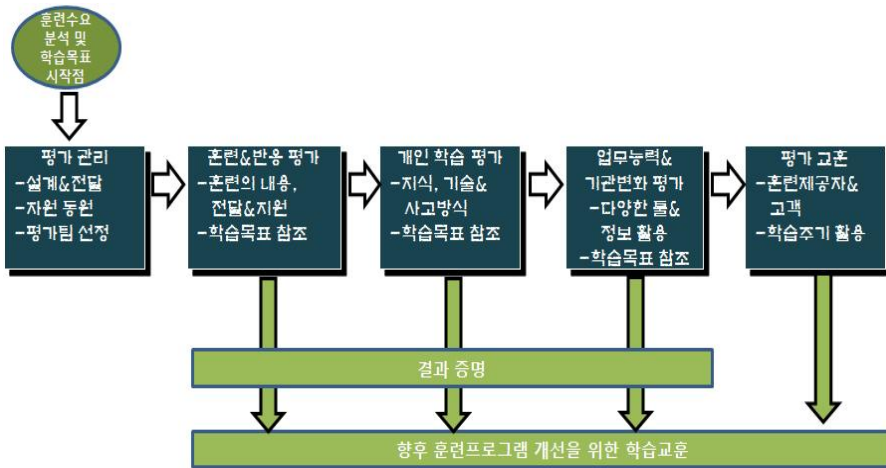
훈련수요분석의 첫 번째 단계인 고객의 수요 확인을 위해서 Five Whys와 Problem Tree Analysis⁵⁷⁾ 툴을 활용한다. Five Whys 툴은 문제의 근원을 밝히기 위해 질문과 답의 형식을 통해 파악하는 것이며 Problem Tree Analysis 툴은 문제들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여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활용된다. 또한 훈련수요분석의 네 번째 단계인 현재역량을 확인하고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SWOT 분석을 활용한다.

최종적으로 훈련목표가 충족되었는지의 여부와 교육과정이 개선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훈련결과에 대한 평가는 훈련행사 평가 및 참여자의 즉각적인 반응, 참여자의 학습평가, 업무수행정도 평가, 조직의 수행정도 및 변화정도 평가 등 다양한 수준으로 평가⁵⁸⁾될 수 있으며 절차는 총 5단계의 과정을 거친다. 훈련결과평가

57) UN-HABITAT(2012), Training for better cities, pp.37-39.

58) UN-HABITAT(2012), Manual Training Needs Assessment and Training Outcome Evaluation in an Urban Context, p.25.

중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는 개인 또는 기관의 업무능력 변화를 평가하는 것으로 Job Shadow Performance Test or Outcome Mapping⁵⁹⁾ 툴을 활용한다.



자료: UN-HABITAT(2012), Manual Training Needs Assessment and Training Outcome Evaluation in an Urban Context, p.27.

〈그림 4-8〉 UN-HABITAT의 훈련결과평가 절차

5. UNITAR

UNITAR(United Nations Institute for Training and Research)는 UN 시스템 내 훈련 부문을 맡는 기관으로, 역량개발과 연구활동을 수행한다. UNITAR는 1962년 UN 총회 결의안 제1827(XVII)호⁶⁰⁾에서 경제적, 사회적, 평화달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협력 간의 긴밀한 상관성을 인지하면서 훈련의 필요성이 처음 언급되었다. 그 후 1963년 열린 제18차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 제1934(XVIII)호⁶¹⁾에 의거해 UN시

59) UN-HABITAT(2012), Manual Training Needs Assessment and Training Outcome Evaluation in an Urban Context, p.69.

60) General Assembly Resolutions on UNITAR, Resolution 1827(XVII) of 18 DECEMBER 1962, United Nation,

61) General Assembly Resolutions on UNITAR, Resolution 1934(XVIII) of 11 DECEMBER 1963, United Nation,

시스템 내의 독립기구로 설립되어 1965년에 활동을 시작하였다. 2007년에는 조직 구조를 개선하고, 수원국의 수요에 부합하는 훈련 및 역량 개발을 확대하기 위해 변혁을 추진하였다.⁶²⁾ 현재 UNITAR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으며, 그 외 뉴욕 사무소와 히로시마 사무소가 있다.

UNITAR의 주요 프로그램 분야는 환경, 거버넌스, 평화 및 안보·외교, 연구이다.⁶³⁾

〈표 4-7〉 UNITAR 프로그램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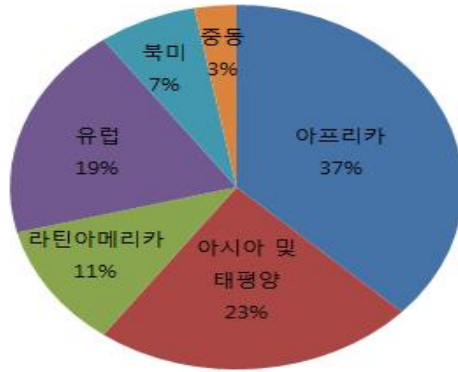
분야	목적	세부 분야
환경 (Environment Unit)	환경 문제 대응 및 지속가능 목표 달성을 위해 회원국, 조직, 기관의 역량 강화	- 화학물질과 폐기물 관리 - 기후변화 - 생물다양성 - 환경 거버넌스 및 환경법
거버넌스 (Governance Unit)	최빈개도국의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역량 개발을 통해 UN MDG 목표 빈곤감축 달성	- 지역 개발(Local Development) - 공공 재정과 무역 - ANIWERP ITOCO (Antwerp-International Training Center for Corporate Opportunities) - 인구이동 프로그램 (Human Mobility Programme)
평화, 안보·외교 (Peace, Security and Diplomacy Unit)	세계 평화, 안보 및 외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회원국의 수요 역량 개발	- 국제법 프로그램 - 다자외교 - 중재 및 분쟁방지 (Peacemaking and Conflict prevention) - 평화유지 훈련 프로그램 (Peacekeeping Training Programme)
연구 (Research Department)	다양한 학습 환경에 적용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 툴, 기술을 개발하여, UN 회원국 및 세계 공동체에 최신 서비스 제공	- UNOSAT (UNITAR's Operational Satellite Applications Programme) - 지식 시스템 혁신 (Knowledge Systems Innovation) - 모니터링 및 평가부 (Monitoring and Evaluation Section)

자료: UNITAR 홈페이지-UNITAR Programme Area(<http://www.unitar.org/programme-area>), 검색일자: 2013.8.12.

62) UNITAR 홈페이지-UNITAR The Institute(<http://www.unitar.org/the-institute>), 검색일자: 2013.8.12.

63) UNITAR 홈페이지-UNITAR Programme Area(<http://www.unitar.org/programme-area>), 검색일자: 2013.8.12.

2012년 UNITAR 프로그램의 수혜자는 총 27,387명으로 이는 2010년보다 약 15% 증가하였다. 지역별 수혜자의 비중은 아프리카가 37%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그 다음은 아시아 및 태평양, 중남미 및 카리브해 순이다. 국가별로는 나이지리아(593), 아프가니스탄(534), 미국(452), 인도(260), 우간다(257), 영국(192), 남아공(176), 카메룬(160), 스위스(157), 케냐(155) 등이 상위 수혜국이다.⁶⁴⁾ 프로그램의 형식은 훈련을 포함하여 브리핑, 강좌, 세미나, 워크숍, 회의, 컨퍼런스, 강의, 파견교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2011년 무렵부터는 프로그램 학습형태(Face-to-face, e-Learning, Blended) 중 e-Learning 방식이 증가하고 있다.



자료: UNITAR 홈페이지-2012 Beneficiary and Event Statistics
 (<http://www.unitar.org/featured/2012-beneficiary-and-event-statistics>),
 검색일자: 2013.8.12.

〈그림 4-9〉 2012 UNITAR 지역별 수혜자 비중

UNITAR는 해외 교육훈련망으로 지방과 지역당국, 정부, 국제기구, 민간부문, 시민사회 간 지식 공유를 위한 허브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국제훈련센터(Centre International de Formation des Acteurs Locaux or Centro Internacional de

64) UNITAR 홈페이지-2012 Beneficiary and Event Statistics
 (<http://www.unitar.org/featured/2012-beneficiary-and-event-statistics>), 검색일자:2013.8.12.

Formación para Actores Locales, CIFAL)를 운영하고 있다. CIFAL은 지역차원의 책임을 증가시키는 맥락에서 지속가능한 도시화를 달성하기 위해 지역책임자의 역량을 구축하고 지원하고 있다. UNITAR CIFAL의 연수프로그램은 지방개발프로그램(Local Development Programme, LDP)⁶⁵⁾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LDP의 목표는 UN MDG를 실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제·사회 개발 역량을 높이고 지역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훈련프로그램은 주로 역량개발 세미나, 워크숍 등으로 이루어지며, 주요 분야는 MDG 달성에 기여하는 경제적·사회적 역량구축이다.

CIFAL은 현재 미국의 애틀랜타, 멕시코의 메리다, 브라질의 쿠리치바, 폴란드의 프워츠크, 영국의 스코틀랜드, 알제리의 알제, 부르키나파소의 와가두구, 남아공의 더반, 중국의 상하이,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 한국의 제주를 포함하여 11개 도시에 위치해 있다.

제주국제연수센터(Jeju International Training Center, JITC)는 2009년 8월 제 5차 제주평화포럼을 계기로 UN과 제주도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UNITAR, 국제평화재단 삼자 간 양해각서 및 UNITAR와 국제평화재단 간 Partnership Agreement 체결로 설립된 UNITAR 산하 기관이다. JITC는 아태지역 개도국 지방정부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제주평화연구원과 함께 국제평화재단의 부설기관으로 설치되어 있다.⁶⁶⁾

제주국제연수센터는 UNITAR LDP가 개발한 훈련내용과 훈련방법에 기반하여 녹색성장 및 생태효율성의 지역화, 지속가능한 도시화 및 환경, 인간안보 및 지방개발분야 중심의 정책 훈련 프로그램⁶⁷⁾을 운영한다. 환경 분야는 주로 한국의 저탄소 녹색성

65) LDP는 2002년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for Sustainable Development)에서 지속가능발전 도시화 달성을 위해 UN, 시민사회, 학계, 지방당국, 민간부문 간 파트너십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나오게 된 결과이다. UNITAR 홈페이지-Programme areas(<http://www.unitar.org/ldp/>), 검색일자: 2013.9.4.

66)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 홈페이지-About CIFAL Jeju, 검색일자: 2013.8.11.

67) UNITAR 홈페이지-Programme areas: Governance(<http://www.unitar.org/ldp/cifal-jeju>), 검색일자: 2013.8.11.

장 모델을 기반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환경 정책수단과 제주도의 자연 환경 보존 정책 등을 소개하고, 인간안보 분야는 개인의 보호와 인권을 강조하는 인간 중심의 새로운 안보 개념을 설명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을 교육⁶⁸⁾한다.

제주국제연수센터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주로 3일간의 워크숍 형식으로 개발역량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태지역 약 10여 개국 지방고위공무원 및 전문가 등(초청 규모 20명 이내이며, 1개국 당 4명 이상은 선정하지 않음)을 대상으로 1년에 평균 6번의 초청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

68)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 홈페이지-About CIFAL Jeju, 검색일자: 2013.8.11.

〈표 4-8〉 CIFAL Jeju 추진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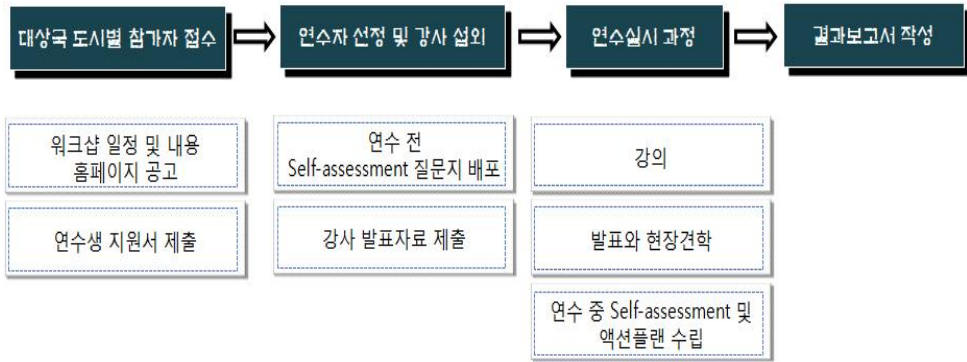
프로그램명	일시 및 장소	형태	대상
Low-Carbon City: Green Growth for Local Governments	2010.11.11~13, 제주도	워크숍	아태 지역의 지방고위공무원 및 전문가
Enhancing Human Security: Developing Local Government Capacities to Combat Child Trafficking in the Asia-Pacific Region	2011.3.30~4.1, 제주도	워크숍	아태 지역의 고위공무원, 지방정부 관계자, 기술공무원, NGO, 학회 등의 전문가
Improving Eco-Efficiency: Green Growth for Local Governments	2011.6.8~6.10, 제주도	워크숍	아태 지역의 고위공무원, 지방정부 관계자, 기술공무원, NGO, 학회 등의 전문가
Enhancing Safety and Security: Reducing Vulnerabilities and Building Resilience to Natural Hazards	2011.9.7~9.9, 제주도	워크숍	아태 지역의 고위공무원, 지방정부 관계자, 기술공무원, NGO, 학회 등의 전문가
Low-Carbon City: Green Growth for Local Governments	2011.10.12~10.14, 제주도	워크숍	아태 지역의 고위공무원, 지방정부 관계자, 기술공무원, NGO, 학회 등의 전문가
Improving Eco-Efficiency: Green Growth for Local Governments	2011.11.9~11.11, 제주도	워크숍	아태 지역의 고위공무원, 지방정부 관계자, 기술공무원, NGO, 학회 등의 전문가
Developing Capacities to Protect and Assist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2012.3.28~3.30, 제주도	워크숍	아태 지역의 관련 고위공무원, 중앙/지방정부 관계자
Low-Carbon City: Green Growth for Local Governments	2012.5.2~5.4, 제주도	워크숍	아태 지역의 고위공무원, 지방정부 관계자, 기술공무원, NGO, 학회 등의 전문가
CIFAL Jeju' s Workshop Series for Biodiversity in the Asia Pacific Region: Developing Local Government Capacities to Mitigate Climate Change and Conserve Biodiversity	2012.9.26~9.28, 제주도	워크숍	아태 지역의 고위공무원, 지방정부 관계자, 기술공무원, NGO, 학회 등의 전문가

〈표 4-8〉 CIFAL Jeju 추진 프로그램 (계속)

프로그램명	일시 및 장소	형태	대상
Workshop on Food and Nutrition Security: Developing Local Government' s Capacities to Enhance Resilience to Food Crisis and Food Self-Reliance	2013.3.20~3.22, 제주도	워크숍	아태 지역의 고위공무원, 지방정부 관계자, 기술공무원, NGO, 학회 등의 전문가
Capacity Building for Sustainable Waste Management in the Asia-Pacific Region to Promote Eco-Town Model and Integrated Solid Waste Management (ISWM)	2013.4.3~4.5, 제주도	워크숍	아태 지역의 고위공무원, 지방정부 관계자, 기술공무원, NGO, 학회 등의 전문가
Capacity Building for Sustainable Waste Management in the Asia-Pacific Region to Promote Eco-Town Model and Integrated Solid Waste Management (ISWM)"	2013.5.22~5.24, 제주도	워크숍	아태 지역의 고위공무원, 지방정부 관계자, 기술공무원, NGO, 학회 등의 전문가
Workshop for Developing Capacities on Climate Change Adaptation and Disaster Risk Reduction (DRR) in the Asia-Pacific Region	2013.9.3~9.5, 제주도	워크숍	아태 지역의 고위공무원, 지방정부 관계자, 기술공무원, NGO, 학회 등의 전문가
Workshop for Developing Capacities on Climate Change Adaptation and Disaster Risk Reduction in the Asia-Pacific Region	2013.10.16~10.18, 제주도	워크숍	아태 지역의 고위공무원, 지방정부 관계자, 기술공무원, NGO, 학회 등의 전문가

자료: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 홈페이지-Programmes,
(http://www.cifaljeju.org/bbs/board.php?bo_table=Past), 검색일자: 2013.8.12.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의 연수 추진절차는 ① 대상국 도시별 참가자 접수, ② 연수자 선정 및 강사 섭외, ③ 연수실시 과정, ④ 결과보고서 작성이다.



자료: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 인터뷰 내용 정리.

〈그림 4-10〉 제주국제연수센터의 연수 추진절차

1단계는 대상국 도시별 참가자 접수로 보통 연수개시 3개월 전에 이루어지며,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는 내부적으로 대상국 도시별 참가자 및 세부주제를 선정하고, 이를 토대로 워크숍 일정 및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고한 후 연수생들의 지원서를 받는다. 지원서는 인적사항, 기본적인 사전질문 등을 포함하는데, 이를 통해 참가자 수준 및 워크숍 아젠다의 이해 정도를 사전에 파악한다. 2단계는 연수자 선정 및 강사섭외 단계로 연수개시 1~2개월 전에 이루어지며, 연수개시 2~3주 전에는 수원국 참가자에게 CityShare Methodology⁶⁹⁾를 토대로 만든 City Metrix indicators(재정, 정책, 인적자원 등을 포함한 10개 지표) level(1~4) 등에 답변하도록 하는 Self-assessment 질문지를 배포하는 과정이 있다. 새로운 아젠다에 대한 지표를 작성할 경우 다른 UN기관의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기도 한다. 연수생이 작성한 Self-assessment 및 강사의 발표자료는 연수개시 최소 1주일 전까지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연수시작 전 Self-assessment를 통해 수원국 참가자를 수준별로 그룹핑하는데, 이를 토대로 평균 3일간의 연수를 실시한다. 보통

69) 2002년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의 결과로서 나온 Decentralized Cooperation Programme(DCP)의 도시 간 지식공유 방법(city-to-city knowledge sharing methodology)이다. UNITAR 홈페이지-Programme areas: Governance(<http://www.unitar.org/ldp/cityshare-methodology>), 검색일자: 2013.9.4.

연수 1일차에는 강의 형식으로 진행되고, 2일차에는 발표 및 현장견학, 3일차에는 수원국의 액션플랜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Self-assessment를 시행한다. 마지막 단계는 연수 후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는 강의, 연수생 개인의 달성 정도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UNITAR 연수는 연수비용을 참가자가 일부(전체 항공료의 50(개도국)~75%(최빈개도국), 숙박비는 제공)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6. 국외 연수기관 비교 및 시사점

국제협력기관의 역량강화 지원사업 시스템 체계와 관련 연수사업을 살펴본 결과 수원국의 국가개발 목표 달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개인 차원의 역량강화에서 조직적, 사회 시스템적 차원의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원조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수요에 맞춘 역량개발 및 성과 중심의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수원국의 수요분야의 역량수준 분석과 모니터링 및 역량개발 평가 강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GEF는 글로벌 환경 보호를 위해 역량강화에 대한 수요, 역량수준격차, 우선순위 등을 분석하기 위한 NCSA 프로그램의 지원을 통해,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실행하기 위한 역량개발시스템 구축을 강조하고 있다.

UN-HABITAT는 7단계로 구성된 훈련수요분석 단계를 거친다. 다양한 분석 틀을 활용하여 훈련 대상자의 수요확인 및 현재 역량수준을 분석하고 있으며 분석결과를 토대로 기대역량의 달성여부와 우선순위 등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훈련프로그램을 최적화하고 있다. 훈련결과 평가에서도 다섯 단계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훈련 대상자 또는 기관의 업무능력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훈련 성과에 대한 평가는 개별 또는 그룹 인터뷰(동료, 상관 등),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훈련 프로그램이나 대상기관의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분석 틀을 상황에 맞게 조합하여 훈련 성과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UNITAR 산하기관인 제주국제연수센터는 연수자들의 역량을 평가하고 액션플랜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연수 전과 연수 중에 CityShare Methodology를 활용하여 Self-assessment를 시행한다. 이 평가 결과를 토대로 수준별 그룹 토의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수원국별 도시 간 같은 수준의 대표자끼리 의견을 공유하고, 서로 논의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해준다. 그러나 Self-assessment의 목적이 단지 수원국의 수준별 토의를 위한 그룹핑에 그치는 것이 아쉬운 점이라고 볼 수 있다. 연수종료 후 결과보고서 작성을 통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후모니터링은 현재 참가국 연수자들의 자발적 참여에만 의존하고 있다. 반면에, UNITAR의 경우 연수비용의 일부를 참가국이 일부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참가자들의 보다 책임 있고 적극적인 연수 실수요자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 연수의 효과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

JICA는 훈련 및 대화 프로그램을 통해 수원국의 개인 및 기관의 역량개발을 위해 연수 프로그램의 ‘준비 단계(preliminary phase)’→ ‘완료 단계(Finalization Phase)’→ ‘후속협력(follow-up cooperation)’ 단계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일본식 고유의 경험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학습자료 개발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JICA는 한국의 개도국 연수사업의 주요 벤치마킹 대상으로 KOICA 등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수사업 추진형태와 가장 유사하다.

SIDA에서 실시하고 있는 초청연수사업인 ITP는 다른 선진국 연수기관의 절차와 거의 유사하나 연수 종료 후 지속적인 자문(약 6~8개월) 지원 및 연수 종료 6개월 후 지역별 세미나를 개최 등을 통해 사후 모니터링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사후 모니터링을 수행한 후 연수 종료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 최종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표 4-9〉 국외 연수기관의 연수 비교

구분	GEF	JICA	SIDA	UN-HABITAT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
연수목표	개도국들의 환경분야 투자 및 기술개발 지원	수원국 기관의 역량 강화	세계 빈곤감축과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개도국 역량강화	사회적,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설립 제고	환경 및 인간안보 분야 중심의 정책 훈련프로그램
투입수단	국가역량자 가평가 프로그램을 통한 역량 사전평가	국내초청연수, 후속협력 활동 지원	국내초청연수, 연수 후 지속적인 자문 실시 및 현지 지역세미나 개최		워크숍 형식의 국내초청연수
수요조사 방식		개도국의 참여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설문조사	스웨덴의 전략적 우위에 있는 분야 고려 및 수원국의 제안	7단계 훈련수요 분석	CityShare Methodology를 토대로 작성한 Self-assessment 질문지 배포
특징	성과지향 중심의 지속가능한 역량개발 지원 가능	일본식 고유의 경험과 지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학습자료 개발에 주력	연수종료 후 지속적인 자문 및 지역별 세미나 개최를 통한 사후모니터링 및 평가실시	다양한 틀 개발 및 활용을 통한 훈련수요분석 및 훈련결과 평가	Self-assessment 의 목적이 단지 수준별 토의를 위한 그룹화 작업에 지나지 않음. 연수비용을 참가자가 일부 부담하기 때문에 훈련 실수요자 확보

| 제5장 · 결론 및 제언 |

국제사회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개도국의 역량발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UN을 비롯한 여러 국제기관들이 수원국의 역량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수원국 중심 및 성과 중심의 효과적인 원조사업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역량강화 지원은 대상 수원국과의 지속적인 상호의견 교환 및 협력을 통해 증장기적인 전략으로 수원국이 주인의식을 갖고 스스로 자국의 특성에 맞는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지원 방식 및 협력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원국의 사회, 경제, 환경적 요소, 국가전략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개도국의 역량강화사업의 배경 및 기본구조를 살펴보고, 개도국의 역량강화를 위해 수행되었던 연수사업을 중심으로 국내외 사례를 비교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도출된 결과 및 정책 제언은 다음과 같다.

개도국들의 다양한 경제성장 수준 및 환경 수준차를 고려하여, 경제성장과 지속가능한 환경존속을 동시에 제고하기 위해서는 수원국과의 신뢰형성을 기반으로 한 지속적인 참여와 협의, 사후 모니터링 및 환류를 통한 역량강화 사업의 선순환적인 프로세스 구축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초기 단계의 수원국 역량수준 분석은 명확한 목표 설정을 반영한 역량발전 프로그램의 기획, 모니터링 및 성과 평가 시 기준이 되는 것으로 역량발전 프로그램을 효과적·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국내의 역량강화 지원의 위한 연수사업의 경우 수원국의 수요조사와 연수사업 자체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수요분야의 역량수준 평가나 연수사업 종료 후 수원국의 역량발전 과정의 모니터링 및 성과 평가체계는 미흡하다. 따라서 국내의 역량강화 사업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 수원국의 역량 수준을 분석 및 기대 목표를 확인함에 따라 이를 토대로 격차를 줄이고 기대 역량 목표 달성이

가능한 분야의 우선순위 선정에 주력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역량 프로그램 이행의 선진화 방안이 필요하다.

가. 주제 분야별 개도국 역량측정 지표 및 성과 평가기법 개발

수원국의 역량개발 사업은 대상국의 현재 역량수준 및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 요구되는 역량과의 격차를 정확히 규명하는 것이 성공적인 역량발전 지원을 위한 출발점이다. 얼마나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역량수준을 측정하고 평가하느냐에 따라 수원국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역량개발 프로그램 설계 내실화가 제고된다. 뿐만 아니라 시간에 따른 역량발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는 척도로 활용할 수 있어 총체적으로 역량개발 지원 사업의 성과 극대화에 기여한다. 2005년 파리선언 등 원조 효과성 제고의 중요성 강조 등으로 인해 UN을 비롯한 여러 국제개발협력기구들은 다양한 분야별 수원국의 현재의 역량수준, 역량발전 사업의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는 성과중심의 지표 및 평가기법 개발에 대한 높은 관심과 지원을 증대하고 있다. GEF의 경우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사막화 방지 부문에 대한 자국의 역량 수준 및 우선순위 분석을 위한 NCSA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역량평가 지표들을 제시하였다. 세계은행은 매년 개도국의 정책·제도 현황(Country Policy and Institutional assessment, CPIA)에 대해 16개의 지표를 토대로 평가를 실시하고 점수화하여 나라별 순위 인덱스 통계자료를 구축하고 있다⁷⁰⁾.

국내의 경우 원조 사업을 위해 대상국가의 수요조사 또는 현장방문 설문조사 등을 통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대상 수원국의 상황을 분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주제 분야별 수원국 현재의 역량수준, 역량개발 지원의 성과 평가 체계의 정확성이나 객관성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평가 수행기관이나 평가자에 따라 동일한 국가, 동일한 주제 분야의 역량 분석결과가 상이할 수 있으며 국가간의 동일한 주제 분야의 역량비교도 어렵다. 따라서 수원국의 지역적 상황과 특성을 고려한 사업의

70) 세계은행 홈페이지(<http://www.worldbank.org>), 검색일자: 2013.9.2.

우선순위 도출 및 역량발전 변화 과정을 정성·정량적으로 객관적 진단·평가할 수 있는 지표개발이 필요하다. 즉, 역량평가 지표는 재평가를 실시하더라도 유사한 결과를 가져와 평가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역량발전 기본원칙 및 원조사업의 원칙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면서 다양한 측면을 포괄적으로 반영한 지표체계를 구성하여야 한다.

UN에서 제시한 기본원칙을 토대로 개인, 조직, 가능한 환경 수준별로 구분하여 i) 이해관계자 참여, ii) 지식/정보 활용 및 공유, iii) 법·제도 수립, iv) 관리 및 이행, v) 모니터링 및 평가 능력을 각 주제 분야별로 역량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 개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역량지표 구성은 사회·경제·환경적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개도국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글로벌한 공통지표와 각 주제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고유지표로 개발·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표준화된 역량지표는 각 사업에 실제 적용 시에는 대상 수원국의 특성을 반영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일부 평가항목의 추가·삭제 등의 변경이 필요할 수도 있다.

나. 개도국의 역량평가 및 성과관리 프로세스 강화

효과적인 사업계획 수립은 현재의 수준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미래의 발전방향을 예측하며 잠재역량 평가 등 정확한 분석을 기반으로 한 전략의 수립에 있다. 마찬가지로 개도국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시작 단계부터 효율적이고 구체적인 역량강화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동일한 지역의 개도국일지라도 국가별 소득격차가 크고 발전 장애요소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수원국의 우선순위 이슈 및 역량 한계점의 정확한 진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GEF의 NCSA 프로세스의 경우 대상 주제 분야의 이슈별 역량 한계점 파악, 역량발전 잠재력 분석 등을 통해 역량을 평가 진단하여 전략을 수립하는 데 대략적으로 12~18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다.⁷¹⁾ 국내의 경우에도 개도국별 국가전략이나 문헌조사 등을 통한

71) A guide for self-assessment of country capacity needs for global environmental management (GEF, 2001.9).

수요조사 분석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해당 국가의 주제 분야별 역량수준 평가는 연수 사업 수행 초기단계에 실시하고 있는 짧은 기간(약 3일 정도 소요)의 현지방문 사전조사 또는 온라인 설문조사, 연수과정에서 수원국의 국별 보고서 발표 세션 등을 통하여 참가국 간의 현황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이는 수원국의 현재 역량수준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미래 역량발전 목표 설정에 맞는 맞춤형 역량강화 지원 프로그램 수립하기에는 시간적, 재정적, 질적인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수원국 중심의 성과 지향적 역량강화 사업을 위해서는 수원국 관계 부처의 핵심 인력을 포함한 기관, 산·학·연, NGO 등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세스 형성 단계가 현재 역량수준 및 미래 기대 역량발전 목표 설정에 매우 중요하다. 즉, 수원국의 핵심인력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주도적인 참여를 통한 활발한 의견소통 및 국가전략 개발 등의 자료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기 개발된 역량평가 지표를 기반으로 한 현재 역량수준을 분석하고 수원국과 협의하여 미래의 역량수준 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또한 수원국의 현재 역량수준의 정확한 분석 및 미래 역량발전 목표 설정기준은 수원국의 역량발전 과정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목표 달성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는 중요한 기초자료이다.

따라서 역량평가 지표를 활용한 철저한 사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역량개발의 진입점이 개인인지, 조직인지, 가능한 환경인지를 규명하고 부문별 역량수준 및 미래 목표달성에 따라 단년/다년 연수사업으로 추진할지, 중장기 프로젝트 사업으로 추진할지 분류하여 이에 따른 구체적인 기획 및 사업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더불어 체계적인 연수사업의 이행·성과 관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제별 역량평가 프로세스 추진에 보다 많은 시간적, 재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역량평가는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DB로 구축하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역량발전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성과중심의 역량강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국내의 전형적인 연수사업 프로그램에 이 모든 과정을 포함하기에는 연수

사업의 예산, 연수기간, 연수 위탁 수행기관의 전문성 등에 현실적 한계가 있을 수 있어 연수 프로그램 이행과는 별도의 프로젝트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 연수수행기관 역량강화

UN 등 국제사회 공동의 목표인 지속가능발전에 부합하면서 효과성 제고를 위한 개도국의 역량강화 사업의 내실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연수수행기관의 역량강화가 수행되어야 한다. SIDA의 경우에는 이를 위해 SIDA 파트너십 포럼을 통해 상당히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국내 KOICA 등에서도 연수기관 간의 모임을 주선하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기회 및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연수기관의 역량지원체계 내실화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수기관도 국제 협력개발사업의 추세와 선진 연수기관의 모범적인 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연수기관 스스로의 역량강화 노력이 필요하다.

라.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그램 지원 강화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 및 이해를 강화하여 장기적 국가 발전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환경교육을 비롯한 지속가능발전교육 지원 사업이 필요할 것이다.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해와 실천은 환경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으며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지역 등 개도국의 중점협력 분야에 대한 선행 연구에도 교육 및 환경이 상위순위로 분석되었다.⁷²⁾

그동안 국제연수사업에서 공공행정 분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온 반면, 교육 및 환경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환경관련 국제교육은

72) 부록 2 참조.

환경 산업 수출을 위한 기술훈련 중심의 강의로 친환경적 사고로의 인식전환을 이끌어 내기에 다소 부족함이 있다. 또한 각 국제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대상이 중첩되고 환경 기술에 대한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이해, 지속가능발전 및 지속가능성의 이해에 대한 부분이 잘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개도국의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인식이 강화됨에 따라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는 지속가능발전 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각 기관에서 실시되고 있는 환경관련 국제 교육의 목적 및 내용을 점검하고 환경, 사회, 경제, 정치 등 다양하고 복잡한 원인들로 인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조화된 지속가능발전 교육개발 및 운영방안 도출이 필요하다.

1) 지속가능발전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지원

국내에서는 2005년 시작된 UN DESD를 기점으로 다양한 교과에서 지속가능발전 교육의 프로그램과 교재를 개발하는 연구가 환경, 사회, 과학, 기술, 윤리 등 다양한 교육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다. 개발된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중 일부는 개발도상국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지만 각 국가의 현황에 맞추어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과 교재를 개발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면, 지속가능발전 및 지속가능발전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이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교재는 단순 번역작업을 통해 적용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지속가능발전은 각 국가의 현황이나 상황, 특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각 국가에 적합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프로그램과 교재의 내용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적용하고자 하는 국가의 특성 및 상황을 고려한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2)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대상별 교육방안

지속가능발전교육은 교육 대상에 따라 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이 매우 다양하게

개발될 수 있다. 따라서 교육 대상별 교육 내용 및 방안을 개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유아, 초·중등학생, 대학생, 일반시민, 전문가, 공무원, 교사 등 다양한 교육 대상을 가진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교육 대상별 지속가능발전교육 내용 및 교육 프로그램, 교재 등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 대상별 지속가능발전교육 내용 및 방법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개발도상국의 교육 대상별 지속가능발전교육 내용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공무원과 교사를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 지원은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공무원은 각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고 운영하는 주체가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개발도상국의 공무원들, 특히 고위 공무원(정책결정자)을 대상으로 하는 지속가능발전교육 지원에 대한 연구 및 협력을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다.

교사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운영하기 위한 주체로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지속가능발전교육 지원은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교육 전문인력 양성과도 연관되는 사업이다. 따라서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교육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요구되는 사업이다.

또한 2012년 10월에 송도에서 열린 이사회를 통해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유엔 산하의 국제기구인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을 송도에 유치한바, 기후변화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를 개발하고 확산한다면 향후 GCF의 중요한 역량강화 지원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언급하고 싶은 것은 수원국의 실수요자의 참여율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현재 전적으로 참여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UN 기관과 같이 일부 수원국이 자체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원조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역량개발과 자금협력과의 연계 및 프로그램 강화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유·무상 원조의 분절화가 심화되지 않도록 각 부처 간 원활한 정보 교류와 지속적인 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국문 자료>

- 구자역. 2008. 「선진국의 아시아개발도상국가와의 교육협력 정책 및 사례 분석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김갑성. 2006. 「동남아시아국가와의 국제교육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김광임, 박태윤, 김윤정, Dinh, Thai Hung. 2010. 「한국-베트남 환경교육협력방안연구(I): 공무원 환경교육 프로그램 작성 및 시범운영」.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광임, 김윤정, 곽순철, 도상찬, 박태윤, 이윤석, 최석진. 2012. 「베트남 환경교육센터 설립사업 PMC 용역」.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김장겸. 2005. 「인도네시아의 세계화 현상 연구: 수하르토 이후의 변화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9(2): 57-94.
- 김진욱. 2011. 「동북아 국가의 후생수준 - ASEAN 국가와 비교를 중심으로」. 동북아경제연구. 35(1): 33-65.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2. 「남아시아의 개발수요와 한국의 분야별 ODA 추진방안」. _____ . 2012. 「동남아의 개발수요와 한국의 분야별 ODA 추진방안」. _____ . 2012. 「아프리카의 개발수요와 한국의 분야별 ODA 추진방안」. _____ . 2012. 「중남미의 개발수요와 한국의 분야별 ODA 추진방안」. _____ .
- 박소영, 이석희, 이찬희, 신호숙, 권을, 최영렬. 2009. 「아시아 개발도상국가와의 중장기-권역별 교육협력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이석희, 이찬희, 박소영, 신호숙. 2009. 「아시아 개발도상국가와의 교육협력에 관한연구(Ⅲ): 중장기 국가별-권역별 교육협력방안」. 한국교육개발원.
- 이선경. 2006. 「국제환경교육협력을 통한 한국 환경교육 활성화 방안: ENSI(Environment and School Initiatives)와의 협력을 중심으로」. 한국환경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155-159.
- 이종무, 김태균, 송정호. 2011. 「수원국의 역량발전을 위한 개발협력전략과 사례연구」. 통일연구원.

- 이창규, 정유경. 2008. 「변곡점 위의 3.5세대, 동남아 교육 환경을 말하다」. 동남아시아연구. 18(2): 299-329.
- 조원권. 2011. 「한국 교육 ODA 개선방안」.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제프리 D. 삭스, 김현구 옮김. 2006. 「빈곤의 종말」. 파주: 21세기북스,
- 최영렬, 황규희, 오호영, 김영생, 정상은. 2007. 「국제교육협력 시범사업 발굴·지원(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한국국제협력단(KOICA). 2010. 「연수생 초청사업 효과성 평가 보고서」.
- _____. 2013. 「KOICA 연수사업 길라잡이」.

<영문 자료>

- Carlos Lopes and Thomas Theisohn. 2003. *Ownership, Leadership and Transformation*
- Global Link Management, Inc. 2012. *Evaluation of Training and Dialogue Programs -Summary-*. Entrusted by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MOFA) of Japan.
- Future we want-Outcome document Paragraph. 277~280. <http://www.uncsd2012.org/>.
- GEF, UNDP, UNEP. *Monitoring Guidelines of Capacity Development in GEF Operations*.
- GEF, UNITAR. 2001. *A Guide for Self-Assessment of Country Capacity Needs for Global Environmental Management*.
- GEF. 2003. *Strategic Approach to Enhance Capacity Building*.
- Ministry for Foreign Affairs (Sweden). 2008. *Global Challenges-Our Responsibility: Communication on Sweden's policy for global development*.
-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2012. *Annual Report JICA 2012*.
-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JICA). 2011. *Outline of JICA Training and Dialogue Programs in Japanese Fiscal Year 2010*. Courses Starting Between April 2010 and March 2011.
- Sakiko Fukuda-Parr, Carlos Lopes, and Khnlid Malik. 2002. *Capacity for Development: New Solutions to Old Problems*. EARTHSCAN. UNDP.
- SIDA. 2004. *Guidelines for ITP administration*
- United Nations. 2002. *Report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ng for*

- Development*. New York: United Nations
- UNDP. 2005. *Measuring Capacities: An Illustrative Catalogue to Benchmarks and Indicators*.
- _____. 2009. *Bureau for Development Policy, Capacity Development*. A UNDP PRIMER
- _____. 2008. *Capacity Development PRACTICE NOTE*
- UNEP. 2002. *Capacity building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 Overview of UNEP Environmental Capacity Development Activities*.
- _____. 2005. *Enhancing Capacity Building for Integrated Policy Design and Implement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UN-HABITAT. 2012. *Training for better cities*.
- _____. 2012. *Manual Training Needs Assessment and Training Outcome Evaluation in an Urban Context*.
- World Bank. 1998. *Assessing Aid: What Works, What Doesn't, and Wh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온라인 자료>

- 국립환경인력개발원(EHRD) 홈페이지-<http://ehrd.me.go.kr>
-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홈페이지-<http://www.oecd.org>
- 세계은행 홈페이지-<http://www.worldbank.org>
-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SIDA) 홈페이지-<http://www.sida.se/English>
-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홈페이지-<http://www.jica.go.jp/english/index.html>
- 유엔개발계획(UNDP) 홈페이지-www.undp.org
- 유엔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Rio+20) 홈페이지-<http://www.uncsd2012.org>
- 유엔훈련조사연구소(UNITAR) 홈페이지-<http://www.unitar.org>
- 유엔훈련조사연구소(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 홈페이지-<http://www.cifaljeju.org>
- 한국국제협력단(KOICA) 홈페이지-<http://www.koica.go.kr/>
- 한국국제협력단 통계시스템 홈페이지-<http://stat.koica.go.kr/>
- Coastal Wiki 홈페이지-http://www.coastalwiki.org/wiki/Capacity_Building

지구촌나눔운동 <http://www.worldfriends.kr/127>

〈부록 1〉

〈부록 표 1〉 KOICA 국별 중점지원 프로그램

지역	국가	중점분야
아시아 태평양	네팔	교육환경 개선,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
	동티모르	인적자원개발, 기초공공인프라구축
	라오스	아동사망률 감소, 중등 및 직업교육 개선, 농촌지역 빈곤감소
	몽골	정부역량 강화,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미얀마	직업훈련능력강화, 농촌개발, 전염병관리
	방글라데시	직업훈련능력강화, 기초보건 향상, 정부역량 강화, 농촌개발
	베트남	환경 및 녹색성장, 기술-직업 교육, 경제인프라 구축
	솔로몬군도	수산업 인프라 구축, 산림관리
	스리랑카	교통인프라 강화, 교육환경개선 및 인력양성, 환경오염관리 능력강화
	인도네시아	기후변화대응, 정부행정능력 강화, 경제인프라 구축
	캄보디아	농업 및 농촌개발, 인적 역량개발, 교통인프라 개선
	필리핀	농업생산성 및 부가가치 제고, 국가 교통 인프라 개선,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
아프리카	가나	모자보건, 기초교육, 에너지 및 산업 인프라 개선
	나이지리아	직업훈련, 초등교육 증진
	르완다	기술교육, 농업 및 농촌개발
	모잠비크	직업훈련, 농촌개발
	에티오피아	기초교육시설 확충, 보건의료서비스 확대, 모자보건
	우간다	농민소득증진, 직업훈련역량강화
	카메룬	공공행정발전, 보건서비스 향상
중남미	DR 콩고	농업 인프라 구축, 보건시스템 강화
	볼리비아	보건시스템 강화, 농업생산성 향상
	콜롬비아	농촌개발, 보건서비스 확대
	파라과이	직업훈련, 보건서비스 확대
중동-CIS	페루	보건서비스 향상, 질병퇴치
	아제르바이잔	정보화촉진, 전자정부
	우즈베키스탄	인적자원개발, 농업생산성 향상
	파키스탄	보건의료서비스 확대, 환경오염관리 능력강화, ICT 분야 인력 양성

자료: KOICA 대외무상원조사업 수요조사 안내, p.14.

〈부록 2〉

1. 개도국 개발 및 협력 사업 수요분석

다음의 내용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2)에서 수행한 개발도상국의 개발수요와 한국의 분야별 ODA 추진방향 연구 결과를 토대로 요약 정리하여 개도국 개발의 협력 사업의 수요를 분석한 것이다. 요약 정리 및 분석 대상인 연구과제는 동남아 개발수요와 한국의 분야별 ODA 추진방향(2012), 남아시아의 개발수요와 한국의 분야별 ODA 추진방향(2012), 중남미의 개발수요와 한국의 분야별 ODA 추진방향(2012), 아프리카의 개발수요와 한국의 분야별 ODA 추진방향(2012)이다.

가. 동남아시아

동남아시아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외자주도형 발전전략을 추진하면서 ASEAN 역내 개발 격차는 매우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경기불안이 심화됨에 따라 역내 개발격차 문제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소득수준에 따라 최빈개도국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동티모르가 포함되고, 저중소득국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이고, 고중소득국은 태국, 말레이시아 등으로 분류된다.

ASEAN 후발가입국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국가의 빈곤지표를 비교해 보면, 하루 2달러 미만의 저소득층 비율이 라오스 76.9%로 가장 높고, 동티모르 72.8%, 캄보디아 57.8%, 인도네시아 53.8%에 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최빈개도국인 캄보디아, 동티모르에 대한 유망협력분야는 경제, 사회 발전에 기초가 되는 경제하부구조, 고등교육 및 훈련, 보건 및 초등교육부문으로 확인되었다.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와의 개발협력 사업에서는 경제 인프라를 비롯해 공업화 과정에서 요구되는 고등교육 및 훈련, 기술, ICT, 금융시장발전, 제도 부문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동남아 개발수요와 한국의 분야별 ODA 추진방향(2012)에서는 동남아 5개국(캄보디아, 동티모르,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의 수원국 필요성 및 한국 공여역량 지수의 평균치로 분석한 결과 또한 경제하부구조에 대한 개발수요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하였다.

동남아 개발수요에 대한 정량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공여역량과 수원국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농업 및 농촌 개발, 인프라 확충 및 지역개발, 기후변화 및 환경 분야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부록 표 2〉 동남아 국가별, 부문별 개발수요 분석 결과

발전단계	국명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최빈국	캄보디아	경제하부구조, 고등교육 및 훈련, 농업, 보건, 초등교육	환경	기술, ICT	금융시장발전, 시장효율성, 제도
	동티모르	경제하부구조, 기술, ICT, 고등교육 및 훈련, 농업, 보건, 초등교육	금융시장발전	농업	시장효율성, 제도, 환경
중소득국	베트남	경제하부구조, 고등교육 및 훈련	금융시장발전, 시장효율성, 제도	기술, ICT, 농업, 보건, 초등교육	환경
	인도네시아	경제하부구조, 기술, ICT	금융시장발전, 시장효율성, 제도	교육, 훈련, 농업, 환경	보건, 초등교육
	필리핀	경제하부구조	금융시장발전, 시장효율성, 제도	고등교육 및 훈련, 기술, ICT, 농업	환경
평균	5개국 평균	경제하부구조, 기술, ICT, 고등교육 및 훈련, 보건	금융시장발전	농업	제도, 시장효율성

나. 남아시아

남아시아는 전 세계에서 개발협력 수요가 가장 큰 지역 중 하나로, 한국의 개발협

력 파트너로서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남아시아는 2011년 기준 세계인구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으나 1인당 GDP가 1,402달러에 불과하여,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다.

남아시아 국가들의 개발협력 수요증가와 함께 원조지원 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최근에는 전 세계에서 남아시아 ODA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6년 10.9%에서 2010년 15.8%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0년대 이후 남아시아 경제는 동남아시아를 추월할 만큼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정치적 안정성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남아시아의 개발수요와 한국의 분야별 ODA 추진방안(2012)에서는 세계경제포럼이 제공하는 소득수준 및 발전단계 등을 고려하여 분석대상국을 선정하고, 두 집단 간의 격차를 측정하여 필요성 및 공여능력을 도출하였다. 남아시아 국가별 중점협력분야 도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부록 표 3〉 국가별 중점협력분야 결과

국가명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방글라데시	경제하부구조, 교육 및 훈련	기술, ICT, 보건, 환경, 제도	금융시장발전, 시장효율성	농업
네팔	경제하부구조, 교육 및 훈련	보건, 금융시장발전, 제도	기술, ICT, 시장효율성	농업, 환경
파키스탄	보건, 교육 및 훈련, 경제하부구조	환경, 제도	기술, ICT, 금융시장발전, 시장효율성	농업
스리랑카	경제하부구조	금융시장발전, 기술, ICT, 교육 및 훈련, 환경	시장효율성, 제도, 농업	보건

남아시아는 전반적인 교육 수준은 높지 않으나 스리랑카와 네팔의 경우 정부가 교육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식자율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파키스탄의 15세~24세 인구의 식자율은 남아시아 평균보다도 낮은데, 남자의 식자율도 68.6%에 불과하며 여자는 40.3%로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초등교육 입학률은 95%에 이르고 있지만 중등학교 진학률은 35% 밖에 되지 않는 등 상급교육으로 갈수록 교육과정 이수 학생이 현저히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방글라데시 국민들의 중등학교 입학률은 51%이고,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여학생 입학률이 오히려 남학생 입학률을 추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식자율도 방글라데시의 15~24세 인구의 식자율은 77%인데 이 중 여자가 78.5%로 남자 75.5%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스리랑카는 초등 및 중등학교 입학률이 각각 98.7%와 104.9%에 이를 뿐만 아니라 이수율도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스리랑카 정부 지출 중에서 교육부문 지출의 비중도 8.1%로 높은 편이다. 이에 따라 스리랑카의 15-24세 인구의 식자율도 98%에 달하는 등 전반적인 교육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네팔은 정부 전체 지출 중 교육부문에 20.2%를 할당하는 등 교육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그 결과 네팔의 15~24세 인구의 식자율은 83.1%로 남아시아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중남미

중남미는 최근 안정적인 경제성장에 힘입어 중남미 각국의 재정능력이 크게 강화되면서 ODA 자금 운영 및 지원 분야 결정에서 중남미 국가들의 입김이 세지고 있다. 그러나 중남미 국가들의 빠른 성장세에 힘입어 수원국으로서 중남미 지역의 위상이 점차 하락하고 있으며, 중남미 대부분의 국가인 24개국(상위소득국과 고소득국에 해당되어 ODA 대상으로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중남미의 개발수요와 한국의 분야별 ODA 추진방안(2012)에서는 개발수요 분석은 중남미 33개국 중에서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파라과이, 볼리비아, 에콰도르, 페루, 콜롬비아 등 7개국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위의 7개국을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ODA 중점협력대상국이며 높은 개발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한국과의 협력에 대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와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한국과의 경제관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우리나라의 ODA 추진 대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연구 대상인 중남미의 7개국은 소득그룹별로 하위 중소득국인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파라과이, 볼리비아(4개국), 상위 중소득국인 에콰도르, 페루, 콜롬비아(3개국)으로 구분된다.

중남미의 개발수요와 한국의 분야별 ODA 추진방안(2012)에서 7개국의 개발수요 분석 결과, 경제하부구조, 환경, 교육 및 훈련, ICT 등이 협력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최종 선정되었다. 교육 및 훈련 분야의 경우는 중남미 국가들의 수요가 많은 훈련, 그 중에서도 직업훈련 분야를 우선협력분야로 선정하였다.

특히 지속가능한 환경이 글로벌 과제로 부상하는 가운데 중남미 지역이 직면한 환경 이슈—천연자원 보존 및 기후변화 등—에 대한 국제적 논의도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다양한 개발 의제들과 환경의 연계성—환경주류화—으로 인하여 중남미 다자 및 양자 ODA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남미 국가들이 지역 차원의 환경 구상을 발전시키면서 기존의 다양한 환경관련 국제협정들을 보완하고 있다.

중남미 주요 7개국 국가개발계획을 살펴본 결과 지속가능한 환경이 국가의 중요한 개발의제이자 주요 ODA 수원 및 공여 분야로 확인되었다. 공여국의 환경 분야 ODA 현황과 특성을 살펴본 결과 중남미지역 환경부문이 중요한 다자 및 양자 ODA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각국이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전략산업 부문에서의 직업훈련 부문에서 직업훈련 및 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실행 중인 직업훈련의 교육내용이 산업 부문의 필요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의 취업을 위한 적절한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중남미 대부분의 국가들은 교육수준이 낮고 전문기술이 부족하여 비공식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중이 높은 상황이다.

라. 아프리카

아프리카의 개발수요와 한국의 분야별 ODA 추진방안(2012)에서는 벤치마킹 기법을 활용하여 분야별로 개발수요의 상대적 크기를 측정한 결과, 농업, 환경, 인프라, 인적자원 4대 분야를 도출하였다.

아프리카에서 녹색혁명이 어려운 요인은 자연 지리적 요인과 산업 정책적 측면, 아프리카 농업방식 등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이다. 아시아는 쌀이나 밀과 같은 소수의 주식식물을 대상으로 다수확 신품종 개발과 관개시설 확충, 그리고 비료사용 확대를 통해 식량 생산을 비약적으로 늘릴 수 있었다. 그러나 아프리카의 경우에는 옥수수 등 곡물 이외에도 카사바, 양(고무의 일종), 감자 등 뿌리작물을 주식으로 하는 복잡한 농업형태를 띠고 있어 농업혁명을 획기적으로 이루어내기에 불리하다. 그러나 아프리카의 빈곤 해결을 위해서는 농업 발전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2000년대 들어 아프리카 국가들은 범아프리카 차원의 농업발전 청사진인 ‘포괄적 아프리카농업개발프로그램(CAPP)’을 추진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환경문제는 마치 전염병처럼 다른 부문에 전이됨으로써 또 다른 환경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아프리카는 ‘자연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워낙 높은 데다가 ‘환경관리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각종 ‘환경위험’에 속수무책인 상태이다.

아프리카의 인프라는 워낙 크게 낙후되어 있어 이것이 아프리카의 빈곤 문제와 직결된다. MDG 지표상에는 인프라와 관련하여 수자원, 위생 분야만이 명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외에도 전력, 교통, 통신 등 기초 인프라 서비스는 교육, 보건, 양성평등, 환경 등 사회적 편익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MDG와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된다. 내륙국가인 르완다는 ‘아프리카의 싱가포르’로 불릴 정도로 투명성이 이탈리아나 그리스보다도 양호하지만 낙후된 인프라가 국가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오늘날 아프리카는 과다한 인구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정작 국가발전에 필요한

인적자본은 세계에서 최약으로, 양질의 교육을 받은 인적자원개발 자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질적으로 향상된 인적자본은 국민적 자립과 국가역량 배양은 물론, 산업화 달성 및 경쟁력 제고 등 국가 경제사회 전반의 원천이 될 수 있다. 아프리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특히 국가발전에 필요한 핵심적인 인적자원의 확보와 확대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Abstract

Direction for the Enhancement of Capacity Building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Developing Countries – Focus on Training Projects

Due to the rising awarenes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wards the need for fostering capacity in developing countries in order to ensur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nhanced effectiveness of aid, the United Nations and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re placing greater effort to contribute to developing capacity across aid recipient countries.

A growing emphasis is placed on the importance of effective aid projects that are recipient-oriented and results-based. In order to strengthen the capacit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developing countries, there must be a continued exchange of opinions and cooperation with recipient countries, and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medium- to long-term strategy with a means of providing support and a system of cooperation under which recipient countries can build a sense of ownership and pursue a course of development suited to national characteristics. This should be based on a thorough analysis and understanding of societ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factors in recipient countries, as well as their national strategies.

This study explores the background and basic structures of capacity-building projects in developing countries, and compares domestic and overseas cases of training projects conducted in order to strengthen the capacity of developing countries.

Considering the different levels of economic growth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among developing countries, the simultaneous pursuit of economic

growth and sustainable preservation of the environment requires the establishment of a virtuous cycle for capacity-building projects, consisting of continued participation and consultation on the basis of trust-building with recipient countries, followed by ex post facto monitoring and feedback. Furthermore, the analysis of initial capacity in recipient countries is the foundation for planning, monitoring and performance evaluation of capacity-building programs in reflection of clear objectives, thereby serving as a cornerstone for the effective and efficient implementation of such programs.

In the case of training projects for capacity development in Korea, despite surveys conducted on demands in recipient countries and self-evalu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training projects, the evaluation of capacity levels in fields of demand remain insufficient, and there is room for improvements in the monitoring and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s of the process of capacity development in recipient countries following the termination of training projects. Therefore, as a means to develop Korea's capacity enhancement projects, it is necessary to take systematic and effective measures for the implementation of capacity-building programs that can analyze capacity levels of recipient countries and reduce the gap towards the anticipated levels, and focus on prioritizing areas that may attain the anticipated capacity goals. The prerequisite tasks and management measures to be pursued in the future include: (i) developing indicators to measure developing countries' capacity in each theme area, and methods of evaluation; (ii) reinforcing the process of evaluating developing countries' capacity and managing their achievements; (iii) strengthening capacity of institutions providing training; and (iv) providing greater support to educational program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Keywords: Sustainable Development, Capacity Development of Developing Countries, Capacity Evaluation, Indicators for Capacity Measurement

KEI 연구보고서 목록 | 2009~2013

기본연구

- 2013년
- 2013-01 환경재정 DB 및 성과분석모형 구축 (장기복)
 - 2013-02 미래지향적 물환경 목표와 관리체계 연구 (이병국)
 - 2013-03 위해성 평가의 정책 활용도 제고를 위한 화학물질 Action Plan 수립 연구(I) (서양원)
 - 2013-04 전략환경평가제도의 실효적 운용방안 연구(I) - 정책계획의 수립절차 및 특성을 중심으로 (유현석)
 - 2013-05 기후변화 적응형 공간계획방법의 개발과 모의적용 연구(I) (김동현)
 - 2013-06 해외 개발사업의 지속가능성 강화에 관한 연구 (정우현)
 - 2013-07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이행 및 평가를 위한 지수체계 개발 (안소은)
 - 2013-08 자원·환경위기 시대에 대비한 에너지가격 개편 추진전략 연구(II) (강만옥)
 - 2013-09 초미세먼지(PM_{2.5})의 건강영향평가 및 관리정책 연구(II) (공성용)
 - 2013-10 물환경 관리여건 변화를 고려한 수질오염 총량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김호정)
 - 2013-11 지속가능한 상하수도 재정체계 구축 및 운용방안 연구 (문현주)
 - 2013-12 지표수-지하수 혼합대의 환경측면 및 관리범주 연구 (현운정)
 - 2013-13 희토류자석의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폐자원흐름의 분석 (조지혜)
 - 2013-14 종량제 생활폐기물 처리의 배출자부담원칙 확대 적용 방안 (이희선)
 - 2013-15 환경보건 감시체계를 활용한 지역 특성별 환경정책수립 연구 (배현주)
 - 2013-16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의 건강 사회분야 평가강화 방안 (이영수)
 - 2013-17 대규모 개발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방안 (조공장)
 - 2013-18 기후변화 적응정책 이행의 효과성 제고 방안 (명수정)
 - 2013-19 가뭄 유형별 기후변화 적응정책 연구 (김연주)
 - 2013-20 해외 생물자원 전통지식의 지속가능한 활용전략 연구 (오일찬)
 - 2013-21 한반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남북협력기반 구축 연구(III) (명수정)
 - 2013-22 국가 해수면 상승 사회·경제적 영향평가(III) (조광우)
 - 2013-23 생물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공유 실행을 위한 지역모델 개발 (이현우)
- 2012년
- 2012-01 부문별 기후변화 적응대책 우선순위 평가 연구 (채여라 외)
 - 2012-02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와의 연계를 고려한 국내 배출권거래제 세부운영방안 연구 (이상엽 외)
 - 2012-03 초미세먼지(PM_{2.5})의 건강영향평가 및 관리정책 연구 I (공성용 외)
 - 2012-04 4대강 물환경 개선 중심의 수량 및 수질 통합관리 정책 연구 (이병국 외)
 - 2012-05 Rio+20 녹색경제 논의 대응 국가비전 및 발전방안 연구 (강상인 외)
 - 2012-06 국가 환경보건지표로서 환경성질병부담 도입방안 (신용승 외)
 - 2012-07 국제환경협력사업 내실화를 위한 국가전략 개발 (이 윤 외)

- 2012-08 기후변화 적응 정보 통합지원 체계구축에 관한 연구 (전성우 외)
- 2012-09 기후변화를 고려한 지류하천 관리 및 수생태 복원 방향 (강형식 외)
- 2012-10 기후변화에 따른 화학물질 위해성 관리방안 II (박정규, 서양원)
- 2012-11 기후변화 적응형 도시구현을 위한 그린인프라 전략 연구 (강정은 외)
- 2012-12 물발자국 개념의 정책적 도입과 활용방안 (노태호 외)
- 2012-13 상하수도시스템의 기후변화 적응전략 및 적응비용 추정 연구 (안종호 외)
- 2012-14 자원·환경위기 시대에 대비한 에너지가격 개편 추진전략 연구 (강만옥 외)
- 2012-15 자발적 협약의 현황 진단 및 효과적 활용방안 (정우현 외)
- 2012-16 환경정책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일반균형 모형 개발 (강성원 외)
- 2012-17 중장기 생물다양성 전략 추진체계 연구 (이현우 외)
- 2012-18 한반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남북협력 기반 구축 연구 II (명수정 외)
- 2012-19 국가 해수면 상승 사회·경제적 영향평가 II (조광우 외)

- 2011년** 2011-01 기후변화 통합영향평가모형 체계 개발: 정책연계모형개발을 중심으로 II (전성우 외)
- 2011-02 지역성장과 연계한 수변지역의 친환경적 개발 방향 (김익재, 최희선 외)
- 2011-03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 연계를 통한 효율적 기후변화 대응 방안 (신상철, 박현주)
- 2011-04 국가적색목록 생물종의 보호를 위한 관리정책 연구 (이현우 외)
- 2011-05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고려한 토지이용예측 모델 개발 I (한혜진)
- 2011-06 기후변화 적응대책 우선순위 평가 방법론 분석 (채여라, 조현주)
- 2011-07 기후변화 적응형 도시 리뉴얼 전략 수립: 그린인프라의 방재효과 및 적용방안 (강정은 외)
- 2011-08 기후변화에 따른 화학물질 위해성 관리방안 (박정규, 신용승)
- 2011-09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영향 연구: 사회경제적 변수에 따른 사망영향 (배현주 외)
- 2011-10 나노 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화방안 (홍용석 외)
- 2011-11 녹색기술 적용촉진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하수슬러지 및 고농도 액상폐기물을 중심으로 (최지용, 김창덕)
- 2011-12 물 재이용을 통한 도시하천 물순환개선 정책방안 (안종호 외)
- 2011-13 사회영향평가 지표 개발 및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조공장 외)
- 2011-14 산업단지 공급계획의 대기분야 전략환경평가 기반구축 (문난경 외)
- 2011-15 저소득계층의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II (추장민 외)
- 2011-16 특정대기유해물질 관리체계 정비방안 (공성용 외)
- 2011-17 폐금속자원 희유금속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기술적·제도적 지원 방안 (이희선 외)
- 2011-18 하수처리장의 에너지 효율성 개선 방안 연구 (조을생 외)
- 2011-19 하천 정비사업의 수질 및 수생태계 분야 사후모니터링 방안에 관한 연구 (전동준 외)
- 2011-20 환경책임과 환경피해보험의 제도화 방안에 관한 연구 II (한상운 외)
- 2011-21 해양 유류유출사고의 중장기적 영향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III (신용승 외)
- 2011-22 한반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남북협력 기반 구축 연구 I (명수정 외)
- 2011-23 국가 해수면 상승 사회·경제적 영향평가 I (조광우 외)
- 2011-24 개발사업의 종합환경영향평가지수 산정에 관한 연구 II (유현석 외)

- 2010년** 2010-0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물산업 육성 정책방안 (김중호 외)
 2010-02 기후변화 통합영향평가모형 체계 개발 : 정책연계모형개발을 중심으로 (전성우 외)
 2010-03 녹색 생활양식 확산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방안 연구 (명수정 외)
 2010-04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환경평가 단계별 성과분석 (신경희 외)
 2010-05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폐기를 관리방안 연구 - 폐기물 부문의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 (주현수 외)
 2010-06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이 환경 관련 질화에 미치는 영향 - 기온상승과 오존농도 증가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배현주 외)
 2010-07 공유하천 물안보 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방안 (김익재 외)
 2010-08 도서지역의 친환경적 용수공급계획 수립방안 (문유리 외)
 2010-09 도시기본계획의 전략환경평가 방법론 연구 (조공장 외)
 2010-10 폐금속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기술적 방안 : 폐전자제품을 중심으로 (김광임 외)
 2010-11 미래 녹색도시 구현을 위한 복합기능 도시습지의 복원 및 조성 방안 연구Ⅱ (방상원 외)
 2010-12 물환경 거버넌스를 위한 의사결정체제 구축 I (이진희 외)
 2010-13 법정보호 야생조류의 서식환경 평가방안 (노백호 외)
 2010-14 식생과 토양의 역할을 고려한 저탄소 토지이용계획 수립 방안 II (황상일 외)
 2010-15 세대간 생체전이성 화학물질 현황 및 관리방향 (박정규)
 2010-16 수변지역 도시재생에 있어 저영향개발기법(LID)의 적용 방안 및 효과 (최희선 외)
 2010-17 대기 중 이산화탄소 분포에 대한 이해 : 위성관측과 GEOS-Chem 결과를 중심으로 (심창섭)
 2010-18 온실가스 배출권 초기할당 방식에 관한 연구 (김용건 외)
 2010-19 저소득계층의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I (추장민 외)
 2010-20 지구온난화에 따른 지역규모 대기질 영향평가 II (문난경 외)
 2010-21 환경가치를 고려한 통합정책평가연구 II (안소은 외)
 2010-22 환경책임과 환경피해보험제도의 제도화방안에 관한 연구 (한상운, 박시원)
 2010-23 해양유류유출사고의 중장기적 영향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II (신용승 외)
 2010-24 개발사업의 종합환경영향 평가지수 산정에 관한 연구 (유현석 외)

- 2009년** 2009-01 도시지역 저소득계층 보호를 위한 환경정책연구 III (추장민 외)
 2009-02 해양 유류유출사고의 중장기적 영향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신용승 외)
 2009-03 환경가치를 고려한 통합정책평가 연구 I (안소은)
 2009-04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위한 배출권거래제 적용방안 연구 (문현주)
 2009-05 하천 건전성 평가모델 LOCOPEM을 적용한 환경평가 예측기법 (노태호 외)
 2009-06 환경평가를 활용한 토지이용계획 수립방안에 관한 연구 - 도시 및 택지개발을 중심으로 (정주철 외)
 2009-07 관광개발 다양화에 따른 친환경적 계획수립 및 평가방안에 관한 연구 (사공희 외)
 2009-08 Noise map을 활용한 환경소음의 관리방안 마련 (선효성 외)
 2009-09 제품분류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직·간접 배출량 추정과 변화요인 분석 (공성용 외)
 2009-10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가할당방안 연구 II (이상엽 외)

- 2009-11 식생과 토양의 역할을 고려한 저탄소 토지이용계획 수립방안 I (황상일 외)
- 2009-12 북한의 가뭄재해 취약지 분석 및 대응에 관한 연구 (명수정 외)
- 2009-13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물환경 관리 전략 및 정책방향 I (김익재 외)
- 2009-14 지구온난화에 따른 지역규모 대기질 영향평가 I (문난경 외)
- 2009-15 미래 녹색도시 구현을 위한 복합기능 도시습지의 복원 및 조성 방안 연구 I (방상원 외)
- 2009-16 국토연안생태네트워크 구축과 계획적 관리방안 II (박창석 외)
- 2009-17 환경시장의 구조 변화와 정책 과제 (김중호 외)
- 2009-18 그린화학제도 활성화 및 산업체 지원방안 (박정규)

수시연구

- 2013년 2013-01 화학물질 사고대응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박정규)
- 2013-02 국가환경지리정보의 환경영향평가 활용현황 및 개선방안 (이상범)
- 2013-03 환경감리제도 도입에 대한 타당성 분석 (전동준)
- 2013-04 제도 홍보 및 성과확산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연차보고서' 발간 기획 연구 (박하늘)
- 2013-05 기후변화적응 홍보정책 전략 마련 연구 (하중식, 김동현)
- 2013-06 기후변화의 사회경제적 영향 평가 체계 및 자료 구축 방안 연구 (채여라)
- 2013-07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이미숙)
- 2013-08 자원순환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 과제 (한상운)
- 2013-09 수변지역 소규모 개발사업의 친환경적 관리방안 연구 (주용준)
- 2013-10 개도국 물인권 확립을 위한 Green ODA 활성화 방안 (이 윤)
- 2013-11 한-아세안 환경협력 전략 마련을 위한 사전연구 (강택구)
- 2013-12 석산개발지 입지유형별 복구 및 활용방안 (사공희)
- 2013-13 개도국 지속가능발전 역량강화사업의 발전방향 (조을생)
- 2013-14 동북아 대기오염 전망을 고려한 국내 석탄화력 발전 증설의 대기질 영향 분석 (심창섭)
- 2013-15 기후변화협약의 적응부문 논의동향과 우리나라의 대응방향 (명수정)
- 2013-16 도심지역 대심도 지하공간 개발의 환경영향과 정책 제언 (현윤정)
- 2013-17 온실가스 감축 관련 국가 계획 현황 및 개선방향 연구 (김이진)
- 2013-18 새만금 수질개선 방안 연구 - 용담댐 방류량을 중심으로 (김연주)
- 2013-19 한반도 「그린 데탕트」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추장민)
- 2013-20 국내 환경기술 수준과 EU BREFs 비교 및 BAT 도입시 비용사례분석 (공성용)

- 2012년 2012-01 Cities and Green Economy : Comparative Study of Korea, China and Japan (정우현 외)
- 2012-02 생물자원의 유용성 판단을 위한 기준 연구 (이현우, 김동욱)
- 2012-03 환경영향평가에 적용되는 3차원 소음예측모델의 가이드라인 마련 (선효성 외)
- 2012-04 환경갈등 예방을 위한 환경평가제도 개선 연구 - 환경영향평가 관련 소송 사례 분석을 통한 접근 (이영수 외)

- 2012-05 민간 부문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정책 기본 방향 (명수정 외)
- 2012-06 내륙 유도선 운항에 따른 수질관리 제도개선 방안 연구 (안중호 외)
- 2012-07 영흥화력 7,8호기 증설 환경영향 및 경제성 분석 (강광규, 김종원)
- 2012-08 오염지하수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현윤정 외)
- 2012-09 간접방류 산업폐수 관리 개선방안 연구 (조을생 외)
- 2012-10 토양생태계의 지속성 관리를 위한 토양환경보전정책 방향 (박용하, 최현아)
- 2012-11 백두대간 기맥에 대한 환경성평가 방안 연구 (이수재 외)
- 2012-12 기후변화 적응 정책 연구 로드맵 및 추진 전략 (권영한 외)
- 2012-13 중국의 對아세안 환경협력 현황 분석 (강택구 외)
- 2012-14 국토개발정책 변화와 공간환경정책의 발전방향 (최희선 외)

- 2011년**
- 2011-01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영향 평가·적응 정책 방향 (신용승 외)
 - 2011-02 ODA사업의 환경평가 관리방안 연구 (조공장 외)
 - 2011-03 풍력발전단지 환경평가 방안 연구: I. 육상, II. 해상 (권영한, 이상범 외)
 - 2011-04 자연재해 발생 시 환경부문의 대응체계 개선방안 연구 (명수정 외)
 - 2011-05 교통환경 소음관리를 위한 소음측정망 system 개선 (박영민)
 - 2011-06 지속가능 발전교육(ESD) 강화방안 (김호석 외)
 - 2011-07 개발사업 환경평가의 중장기 모니터링 방안 (신경희 외)
 - 2011-08 재난성 원전사고에 따른 방사성오염의 토양·지하수관리 방향 마련 (황상일 외)
 - 2011-09 선보전 후개발 원칙의 실현방안 연구: 제주특별자치도 사례 중심 (권영한 외)

- 2010년**
- 2010-01 기후변화에 대한 생물종의 민감성 평가방안 연구 (이현우)
 - 2010-02 Integrated Water Management Model on the Selenge River Basin Phase III (추장민 외)
 - 2010-03 녹색생활 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명수정, 강민수)
 - 2010-04 지하수자원의 합리적 이용·관리를 위한 비용 부담체계 및 지하수재정 운영방안 연구 (문현주)
 - 2010-05 낙동강 조류발생 특성분석 및 관리 정책방안 (정유진 외)
 - 2010-06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능력 평가를 위한 지표체계 개발 및 시범적용 (이정호 외)
 - 2010-07 수용성 향상을 위한 조력발전의 환경친화적 건설방안 (이희선 외)
 - 2010-08 환경성평가에 있어서 서식지 조사 및 보전방안 (노백호, 이현우)
 - 2010-09 기후변화와 사회통합에 관한 정책과제 개발 연구 (추장민 외)
 - 2010-10 하천·호소 퇴적물 관리 및 준설물질 활용방안 (김익재 외)
 - 2010-11 국가 온실가스 배출정보 작성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 (김호석)
 - 2010-12 외국의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른 법적 쟁점 분석 (한상운, 박시원)
 - 2010-13 상수원지역의 친환경 토지관리방안 (최지용)
 - 2010-14 기후변화 취약성 지수분석을 통한 국가적응역량 제고방안 모색 (김연주 외)
 - 2010-15 도시농업의 온실가스 저감효과 및 정책방안 (이현우 외)

- 2010-16 물자원 이용과 관리를 위한 비용분담체계와 가격정책 연구 (문헌주)
- 2010-17 대기질개선 특별대책 추진 경험 및 성과 평가 (강광규 외)

- 2009년**
- 2009-01 저탄소·자원순환형 사회 구축을 위한 환경정책 (장기복 외)
 - 2009-02 Integrated Water Management Model on the Selenge River Basin II (추장민 외)
 - 2009-03 4대강 살리기 사업지역의 하천 환경현황 분석 방안 연구 (이수재)
 - 2009-04 합리적인 수리권 및 수자원에의 기여와 보상체계 연구 (문헌주)
 - 2009-05 지속가능발전 관점에서의 녹색성장 의미와 평가방안에 관한 연구 (김호석 외)
 - 2009-06 남·북한 공유하천의 관리 현황과 물안보 확보방향 (김익재 외)
 - 2009-07 미세먼지의 농도 변화를 이용한 다중 이용시설의 흡연으로 인한 실내공기질 관리 정책 평가 (김성렬 외)
 - 2009-08 유네스코 지질공원의 특성과 시사점 연구 (이수재 외)
 - 2009-09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위한 필요 전문기술인력 추정 (안중호 외)

Working Paper

- 2013년**
- 2013-01 토양자원 유실 최소화를 위한 국내외 환경영향평가 사례 연구 (신경희)
 - 2013-02 PM-2.5 환경영향평가 방안 연구 (이영수)
 - 2013-03 지자체 적응대책 수립지원을 위한 기후변화 시나리오 자료 활용 방안 (정휘철)
 - 2013-04 기후변화에 따른 도심지역 지질재해 리스크 체계 마련 (이명진)
 - 2013-05 비전통가스 개발의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조한나)
 - 2013-06 모니터링을 통한 친환경 계획기법의 적절성 검증 기초연구 - 도시공간에서의 Stepping Stone을 중심으로 (최희선)
 - 2013-07 국가와 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계강화 방안 (임영신)
 - 2013-08 KEI 환경정보체계 발전방안 (전성우)
 - 2013-09 도시하천 유역의 환경평가 방법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 (홍현정)
 - 2013-10 제조업 환경비용의 국제비교 (조일현)
 - 2013-11 바이오가스의 재생연료의무혼합제도에 관한 해외사례 분석 (조지혜)
 - 2013-12 자연경관심의제도의 현황분석 및 제도 개선방안 (주용준)
 - 2013-13 층간소음 관리를 위한 기초연구 (박영민)
 - 2013-14 지속가능성 관점에서의 산업구조 변화 분석 (이미숙)
 - 2013-15 KEI 중국환경 중장기 연구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 (추장민)
 - 2013-16 기후변화 적응관련 취약계층 지원 대책 현황조사 및 분석 연구 (신지영)
 - 2013-17 한국 ODA사업의 환경평가 모니터링 현황과 해외사례 비교 연구 - 사업 종료 후 모니터링 사례를 중심으로 (김태형)
 - 2013-18 국내 전략환경평가의 사회·경제성 부문 기능 확립을 위한 기초연구 (이상윤)
 - 2013-19 환경영향평가시의 시설별 유해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을 위한 기초연구 (주현수)

- 2013-20 지형장애물 분석을 통한 환경현황 자료 작성방안 (김지영)
- 2013-21 상수원보호구역 상·하류의 수변지역 관리방안 연구 - 잠실상수원보호구역과 팔당 상수원보호 구역 구간 중심으로 (김태운)
- 2013-22 2013 국민환경의식조사 연구 (이미숙)
- 2012년** 2012-01 기후변화를 고려한 농업 가뭄지수 활용 및 적용 기초 연구 (이진영)
- 2012-02 산림경영 기반시설의 주요 환경영향 - 선형사업(임도) 중심으로 (천영진 외)
- 2012-03 방조제 건설에 따른 연안환경의 중장기 변화 평가 연구 - 아산만 수치모델링 중심으로 (김태운)
- 2012-04 지속가능한 지하수자원 확보를 위한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연구 - 외국의 지하수 보전구역 사례 분석 (현윤정)
- 2012-05 공공부문의 지역별 환경보호지출 및 수입(EPER) 통계 추계 (조일현, 김종호)
- 2012-06 누적영향평가 적용의 사례 분석 및 시사점 연구 (김진오)
- 2012-07 유해성에 따른 「폐기물 종료기준」의 해외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조지혜 외)
- 2012-08 도시 지하공간 조성에 따른 환경영향 관리 방향 연구 (김윤승)
- 2012-09 폐기물 처리관련 업종의 여건변화가 여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신상철)
- 2012-10 미래 건강부담 추정영향요인 고찰 -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증가를 중심으로 (하중식, 신용승)
- 2012-11 셰일가스 국내 도입에 따른 에너지·환경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주현수, 조한나)
- 2011년** 2011-01 수자원 현황 및 영향요인: 기후변화를 중심으로 (김연주, 정은성)
- 2011-02 도시계획의 전략환경평가를 위한 기후요소 평가기법의 해외사례 분석 (엄정희, 유승헌)
- 2011-03 임진강 유역의 저수지 지리정보 구축과 수질평가 기초연구 (홍현정, 김익재)
- 2011-04 방사능 재해에 따른 환경 및 인체 영향 분석 (심창섭, 홍지연)
- 2011-05 해조류를 이용한 바이오연료의 환경 친화적 적용을 위한 기초연구 (조지혜, 이희선)
- 2011-06 토양·지하수 오염부지의 종합적위해성평가를 위한 생태위해성평가체계 구축 (김윤승, 이주연)
- 2011-07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의장(국)의 역할 기초연구 (김이진)
- 2011-08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효율적 이행방안을 위한 제도적 고찰 (최상기 외)
- 2011-09 지하수오염의 평가 및 정화 규제 정책 방향 제시를 위한 연구: 염소계유기용제 오염 중심으로 (김호정 외)
- 2011-10 조력발전소 건설사업에 의한 해양 생물상 영향 사례 고찰 (천영진 외)
- 2010년** 2010-01 주요 교역국의 화학물질 규제동향 분석 (박정규, 김용성)
- 2010-02 국내 자원순환지표 변화 추이 (김광임 외)
- 2010-03 나노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환경·사회안전망 구축방안 연구 (홍용석)
- 2010-04 수문·식생 모사를 위한 지표모델의 동아시아 적용 타당성 분석 (김연주)

- 2010-05 어류의 물리서식처 적합도 지수 산정 방안 고찰 (강형식 외)
- 2010-06 북한의 탄소시장 잠재력 추정 연구 - 에너지부문을 중심으로 (강광규, 이우평)
- 2010-07 야간조명으로 인한 생태계 영향 평가 방안에 관한 연구 :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이상범)
- 2010-08 고령화 사회의 생활패턴 변화 및 환경이슈 조사 연구 (공성용)
- 2010-09 고온으로 인한 사망 누적효과 분석 방법론 연구 (하종식, 신용승)
- 2010-10 CMAQ을 적용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대한 매뉴얼 (문난경)
- 2010-11 해안개발사업 환경평가 영향예측 결과에 근거한 해양동식물상 조사정점 선정방안 (맹준호, 조범준)
- 2010-12 산업단지 사업에서의 수질오염 영향범위 설정방안 (조한나, 송영일)
- 2010-13 개발사업 생태계훼손사고 대응 매뉴얼 구축 (박하늘, 전동준)
- 2010-14 지형 특성을 고려한 지형변화의 적정량 평가방안 (사공희, 정재현)
- 2010-15 소음지도를 활용한 소음평가 개선 방안 연구 : 택지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선효성)
- 2010-16 CCS 관련 해외 환경관리 제도 및 연구동향 분석 (신경희)

기초연구

- 2009년** 2009-01 다목적댐 상류 폐광산 등 비점오염원 관리방안 (최지용 외)
- 2009-02 도시지역 우수공급체계에 관한 고찰 (문유리 외)
- 2009-03 폐기물 재활용 규제 선진화 방안 - 포장 및 가전폐기물을 중심으로 (김광임)
- 2009-04 유해물질 관리를 위한 SFA(물질흐름분석) 방법론 적용 연구 (주현수)
- 2009-05 녹색정화(Green Remediation) 최적관리기법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 (황상일, 조한나)
- 2009-06 물환경 기준의 통합적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한대호, 최지용)
- 2009-07 기후변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고찰 - 습지식물상을 중심으로 (권영한, 최홍근)
- 2009-08 도시지역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열섬효과 완화방안 연구 (명수정)
- 2009-09 4대강 관련 법률 및 제도의 현황분석과 효율적 개선방안 (김태형 외)
- 2009-10 지역단위 하수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 (조을생)
- 2009-11 기후변화 관련 환경보건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김성렬)
- 2009-12 환경책임과 환경피해보험제도의 제도화방안에 관한 기초 연구 (한상운)
- 2009-13 실시간 수질 모니터링 및 모델링 체계에 관한 고찰 (정유진)
- 2009-14 수질보전을 위한 새만금호 배수갑문 운영 대안에 관한 연구 (이진희)
- 2009-15 식물생태계가 대기 중 오존농도에 미치는 영향 -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심창섭)
- 2009-16 풍력발전시설에서 발생하는 환경소음 및 저주파음의 영향 (박영민, 정태량)
- 2009-17 신도시의 물순환 건전화를 위한 그린인프라 조성 기준에 대한 연구 (장수환)
- 2009-18 저탄소 생태관광지표 개발 및 평가 (배민기, 박창석)
- 2009-19 기후변화에 따른 연안역의 해역-육역 통합 범람 예측 방안에 관한 기초 연구 - 해석 모형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김경준 외)
- 2009-20 기업 환경보호지출과 오염배출량의 상관관계 분석 - 대기분야를 중심으로 (하종식 외)

기후환경정책연구

- 2013년 2013-01 중장기 환경전망 연구 (강성원)
2013-02 환경가치 DB 구축 및 원단위 추정(Ⅳ) (안소은)
2013-03 유기성 폐자원의 효율적 에너지화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 방안 연구 (한상운)
2013-04 기후환경 취약계층의 환경복지 정책연구(Ⅰ) (박정규)
2013-05 온실가스감축정책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Ⅰ) - 감축목표달성을 위한 비용효과적 정책혼합 (강희찬)
2013-06 화석연료 대체에너지원의 환경경제성 평가(Ⅰ) (이창훈 외)
2013-07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생태계 환경안보 강화 방안(Ⅰ) (이수재)
2013-08 국토환경관리정책 변화와 개발제한구역의 지속가능한 관리 방안 (전성우)
2013-09 국가 물안보 체계 구축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안 연구 (강형식)

녹색성장정책연구

- 2012년 2012-01 중장기 환경전망 및 대응전략(Ⅰ) (강성원 외)
2012-02 보호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관리 - 지역의 생태·경제·사회적 특이성을 기반으로 한 접근 (박용하 외)
2012-03 산업계 유기성폐기물의 자원화 촉진방안 연구 (신상철 외)
2012-04 도서지역 친환경 관광계획 수립방안에 관한 연구 (이상범 외)
2012-05 온실가스 감축의무 협상동향 및 대응방향 연구(Ⅳ) (이정석 외)
2012-06 주요국 온실가스 감축정책 동향 및 시사점 (김용건 외)
2012-07 지열에너지의 환경성 평가 및 환경친화적 이용 방안 (이희선 외)
2012-08 기후변화 대응 물안보 위기관리 정책 연구 (김호정 외)
2012-09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상하수도 선진화 방안 (조을생 외)
- 2011년 2011-01 환경가치 DB 구축 및 원단위 추정 Ⅲ (안소은 외)
2011-02 국토자연자원의 현명한 이용전략 수립 Ⅲ (박창석 외)
2011-03 공간환경계획에 기반한 광역계획의 전략환경평가 방안 (최희선 외)
2011-04 고흥사회 진입에 따른 환경문제 및 정책과제 (이정석, 손원익)
2011-05 온실가스 감축의무 협상동향 및 대응방향 연구 Ⅲ (이정석 외)
2011-06 한중·일 탄소시장 연계의 파급효과 분석 (김용건, 공현숙)
2011-07 탄소세 도입 및 에너지세제 개편방안 연구 (강만옥 외)
2011-08 해양에너지의 환경성 평가 및 환경친화적 국토이용방안 (이희선 외)
2011-09 물관리 취약성과 물안보 전략 Ⅲ (김익재 외)
2011-10 물자원의 가치 변화와 물산업 선진화 전략 (문현주)
2011-1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적정 하천공간 확보방안 Ⅲ: 극한홍수 대응책을 중심으로 (강형식 외)

2011-1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수자원 네트워크 구축방안 연구 II (이진희 외)

2011-13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수질제어 및 관리방안 II (안종호 외)

2010년 2010-01 녹색성장 촉진을 위한 환경규제 선진화 방안 (김종호 외)

2010-02 녹색성장 평가를 위한 지표체계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김종호 외)

2010-03 환경정보체계에 기반한 공간환경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마련 II (최희선 외)

2010-04 연접개발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개선 방안 (선효성 외)

2010-05 환경가치 DB 구축 및 원단위 추정 II (안소은 외)

2010-06 국토자연자원의 현명한 이용전략 수립 II (박창석 외)

2010-07 환경문제를 둘러싼 지역갈등 해소 및 거버넌스 강화 방안 (이정석 외)

2010-08 온실가스 감축의무 협상동향 및 대응방향 연구 II (박시원 외)

2010-09 국제 탄소시장 동향 및 전망 (이윤, 손원익)

2010-10 국내 에너지 시장구조를 고려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설계 방안-발전부문 참여방안을 중심으로 (신상철 외)

2010-1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세 도입방안 (신상철 외)

2010-12 재생에너지의 환경성 평가 및 활성화 방안 - 폐자원을 중심으로 (이희선 외)

2010-13 기후변화 적응 강화를 위한 사회기반시설의 취약성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III) (명수정 외)

2010-14 물관리 취약성과 물안보 전략 II (김익재 외)

2010-15 해수면 상승에 따른 취약성 분석 및 효과적인 대응정책 수립 II : 연안역 범람평가 및 대응방향 (조광우 외)

2010-16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적정 하천공간 확보방안 II (강형식 외)

2010-17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수자원 네트워크 구축 방안 I (이진희 외)

2010-18 기후변화 연동 4대강 유역 지하수 함양량 예측 및 이용 가능량 산정 II (이정호 외)

2010-19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수질 제어 및 관리방안 I (안종호 외)

2009년 2009-01 국내 대기오염규제의 온실가스 저감효과 제고방안 (김호석 외)

2009-02 환경정보와 가이드라인 제공에 의한 자율적 환경평가 지원 (이영준 외)

2009-03 환경정보체계에 기반한 공간환경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마련 (최희선 외)

2009-04 환경평가 절차 효율화를 위한 스크리닝의 단계별 도입방안 (신경희 외)

2009-05 환경가치 DB 구축 및 원단위 추정 I (안소은 외)

2009-06 국토자연자원의 현명한 이용전략 수립 I (박창석 외)

2009-07 온실가스 감축의무 협상동향 및 대응방향 연구 I (김용건 외)

2009-08 온실가스 저감잠재성 분석 및 감축정책 연구 - 수송 및 건물부문 (강만옥 외)

2009-09 재생에너지의 환경성 평가 및 환경친화적 개발 I - 태양광 및 풍력에너지를 중심으로 (이희선 외)

2009-10 기후변화 적응 강화를 위한 사회기반시설의 취약성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I (명수정 외)

2009-11 물관리 취약성과 물안보 전략 I (안종호 외)

2009-12 해수면 상승에 따른 취약성 분석 및 효과적인 대응정책 수립 I - 해안침식 영향평가

(조광우 외)

2009-13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적정 하천공간 확보방안 연구 (정주철 외)

2009-14 기후변화 연동 4대강 유역 지하수 함양 및 이용가능량 산정 기법 개발 I (이정호 외)

※ KEI 설립 이후 현재까지의 보고서 원문은 KEI 홈페이지(www.kei.re.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